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entry into the
East Sea Rim markets
- focusing on Far East Russian cases -

2018. 12.

이기열 | 신수용 | 최나영환

이현주 | 조진철 | 유현아 | 어은주 | 송정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협동연구사업명”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60-01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기열 전문연구원 (총괄 책임자)	신수용 전문연구원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협력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이현주 책임연구원	조진철 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 유현아 연구원

발간사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극동 러시아 지역은 과거 우리나라 북방정책의 핵심지역 중 하나로써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신북방정책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외교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힌 구상으로써 동북아 중심 경제·외교정책을 뛰어넘어 북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정책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12년부터 신동방정책을 내세워 극동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에 대한 의지는 푸틴 집권 3기와 함께 구체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신동방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에너지, 우주·항공, 군수분야 등 러시아 전략산업의 아태시장 진출 확대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진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연계하려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육성 정책 추진과 더불어 주요 국가들도 극동 러시아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교통인프라 연결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역시 신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극동 러시아 개발 참여, 남·북·러 협력사업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개선 분위기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극동지역 개발 정책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극동 러시아 진출도 점차 가속화·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에는 법률, 행정, 제도의 복잡함 등으로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근 변화되고 있는 극동 러시아 지역개발 여건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분석을 통한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선도개발구역 확대 지정, 투자유인을 위한 각종 선진시스템 도입 등 극동 러시아의 자체 노력과 더불어 최근 북한 및 남북관계의 변화를 비롯한 주변 정세가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극동 러시아 진출 방안과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 원의 이기열 전문연구원, 신수용 전문연구원,

최나영환 전문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이현주 전문연구원, 조진철 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다. 착수부터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연구심의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성우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본 연구의 자문을 해 주신 경북대학교 서영준 교수, 동아대학교 원동욱 교수, 경희대학교 최영진 교수,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 SLK 국보 최수범 상무, KMI 하동우 박사께 깊은 사의를 표하고 싶다.

2018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목차

❖ 요약 · i

❖ Executive Summary · i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7

제 2 장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여건 검토 · 11

제1절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11
1.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11
2.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13
제2절 극동 러시아 주요 정책	15
1. 선도개발지역	15
2. 자유항(Free port)	20

3. 차이점	22
제3절 극동 러시아 경제 여건	24
1. 경제 동향	24
2. 경제구조	26
제4절 극동 러시아 법·제도 여건	29
1. 주요 외국인 투자법	29
2. 주요 투자인센티브	34
제5절 극동 러시아 인프라 여건	37
1. 항만	37
2. 공항	39
3. 철도 및 도로	42
4. 에너지	45

제 3 장 국내외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 49

제1절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49
1. 화주기업	51
2. 물류기업	51
3. 지역개발기업	53
제2절 해외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55
1. 일본	55
2. 중국	62
3. 시사점	69
제3절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사례 분석	71
1. 화주기업(현대중공업)	71
2. 물류기업(범한판토스)	82
3. 지역개발기업(현대농장과 에코호즈)	90
4. 시사점	97

제 4 장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방안 · 101

제1절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가능 분야 및 애로사항 · 101	
1. 극동 러시아의 입지적 특징	101
2. 진출 가능 분야	102
3. 진출 애로사항	108
제2절 성공가능 모델	112
1. 동반진출 모델	113
2. 한-러 합작(협력) 모델(Joint-Venture)	115
3. M&A	116
제3절 협력가능 사업 및 과제	116
1. 동반진출 모델	117
2. 한-러 협력 모델(Joint Venture)	120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7

제1절 요약 및 결론	127
1.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여건	127
2. 국내외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129
3.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가능 분야 및 애로사항	131
제2절 정책제언	132
1.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	132
2. 국내 기업 진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133
3.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플랫폼 구축	136
4. 현지 물류전문가 양성 및 교환 프로그램 개설	139
5. 세관 절차 및 요구서류 등 통관부문 지원	142
6. 산업 유형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144
7. 자금조달 및 초기 운영 리스크 경감 방안 수립	147
8. Exit 전략 마련	149

표 목차

❖	
〈표 1-1〉 사업 개요	5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표 2-1〉 신북방정책 로드맵	13
〈표 2-2〉 푸틴 집권기의 극동개발정책	14
〈표 2-3〉 선도개발지역 지정 현황	18
〈표 2-4〉 선도개발지역 입주 주요 혜택	19
〈표 2-5〉 아태지역 주요국 비즈니스 투자 환경 비교	23
〈표 2-6〉 러시아 주요 경제 지표	24
〈표 2-7〉 러시아 지역 구분(2017년 기준)	27
〈표 2-8〉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정의	29
〈표 2-9〉 러시아 외국인 투자자 정의	30
〈표 2-10〉 극동 러시아 외국인 투자 형태 I	31
〈표 2-11〉 극동 러시아 외국인 투자 형태 II	32
〈표 2-12〉 러시아 외국인 투자 제한산업 리스트	32
〈표 2-13〉 세금 인센티브	35
〈표 2-14〉 SEZ 투자자 혜택	36
〈표 2-15〉 극동 러시아의 지역별 항만	38
〈표 2-16〉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와 바이칼-아무르 라인(BAM) 개요	42
〈표 2-17〉 극동 러시아 지역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47
〈표 3-1〉 극동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리스트	49
〈표 3-2〉 업종별 일본기업 진출 현황	57
〈표 3-3〉 지역별 일본기업 진출 현황	57
〈표 3-4〉 주요 중국 국가급 협력구(기업) 현황	65
〈표 3-5〉 주요 중국 성·시급 협력구(기업) 진출 현황	67

〈표 3-6〉 현대중공업의 진출과정	75
〈표 3-7〉 진출 리스크	80
〈표 3-8〉 진출 주요 실패 요인	82
〈표 3-9〉 범한판토스의 러시아 진출 현황	84
〈표 3-10〉 주요 진출 리스크	84
〈표 3-11〉 러시아 통관 서류 및 소요시간	86
〈표 3-12〉 러시아 통관 여건 변화	86
〈표 3-13〉 러시아 통관 특징	87
〈표 3-14〉 진출 주요 성공 요인	89
〈표 3-15〉 현대농장과 서울사료(에코호즈)의 진출배경 및 과정 요약	93
〈표 3-16〉 주요 진출 리스크	94
〈표 3-17〉 진출 주요 성공 요인	97
〈표 3-18〉 극동 러시아 진출 리스크	98
〈표 4-1〉 사업모델 및 협력가능 사업(안)	117
〈표 4-2〉 미하일롭스키 지역의 인프라 현황	123
〈표 5-1〉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138
〈표 5-2〉 러시아 전문인력 지원 방안	141
〈표 5-3〉 러시아 수입 통관 제출 서류	143
〈표 5-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	147
〈표 5-5〉 환율 리스크 관리기법	149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위치	17
〈그림 2-2〉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현황	21
〈그림 2-3〉 러시아 연방관구별 경제 비중 (2015년 기준)	25
〈그림 2-4〉 극동 러시아 9개주 위치	37
〈그림 2-5〉 극동 러시아 포함 동북아 철도 연결 사업	43
〈그림 2-6〉 프리모리예 I, II 노선의 개념도 및 개발 개요	44
〈그림 2-7〉 동부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현황	46
〈그림 3-1〉 QIWI 주요 사업 분야 및 기능	60
〈그림 3-2〉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 현황(2017. 2. 기준)	63
〈그림 3-3〉 현대일렉트로시스템 조감도	73
〈그림 3-4〉 현대일렉트로시스템 공장 내부 사진	74
〈그림 3-5〉 러시아 산업시설(공장)의 건설 절차	77
〈그림 3-6〉 현대중공업의 기업지배구조 및 주요 연혁	91
〈그림 3-7〉 서울사료(에코호즈) 기업지배구조 및 주요 연혁	92
〈그림 4-1〉 남-북-러 가스관 예상 노선	106
〈그림 4-2〉 극동 러시아 진출 주요 애로사항	112
〈그림 4-3〉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모델(안)	115
〈그림 4-4〉 한-러 수산업 분야 협력방안	120
〈그림 5-1〉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추진 체계	137
〈그림 5-2〉 산업 유형별 분류 예시	146

요약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는 극동 러시아에 진출한 화주,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진출과정, 애로사항, 성공 및 실패요인 등을 통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 본 연구에서는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해외기업 유치, 육성 정책 및 관련 법·제도, 경제 구조와 여건, 물류 인프라(항만, 도로, 철도 등) 현황 등의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음
- ▶ 이를 바탕으로 극동 러시아로의 기업 진출여건 현황이 검토되었음

며, 더불어 극동 러시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의 현황 조사와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과정 및 진출 리스크를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였음

- ▶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극동 러시아 진출을 위한 리스크 저감 방안 및 극동 러시아 진출 모델을 도출하고, 환동해권 협력과제 및 협력 가능사업을 도출하였음

〈표-1〉 본 연구 방법의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기초 분석	• 신북방정책 및 신동방정책 검토 • 극동러시아 주요 정책 • 극동러시아 경제 여건 • 극동러시아 법·제도 여건 • 극동러시아 인프라 여건	• 관련 문헌조사 • 극동러시아 동향 및 관련 정책 조사	• 국내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 여건 검토 • 극동러시아의 선도개발지역, 자유항 등 주요 정책 검토 • 극동러시아의 외국인투자법, 투자인센티브 등 주요 법·제도 여건 검토 • 항만, 공항, 철도, 에너지 등 극동러시아의 인프라 여건 검토
진출 현황 분석	•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 해외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사례 분석	• 관련 문헌조사 • 전문가 인터뷰	• 국내외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 국내외 화주,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의 러시아 진출 현황 분석
국내 외 출장 조사	• 극동러시아 진출 가능 모델 파악 • 진출 성공기업의 주요 성공 요인 파악 • 진출 실패기업의 주요 실패 요인 파악	• 전문가 인터뷰	• 진출 주요 애로사항 도출 • 주요 진출 성공 및 실패 요인 • 진출 가능 분야, 협력가능 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전문 가 자문	• 극동러시아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언	•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	• 국내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을 위한 현실적 정책제언, 실현 가능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필요

2) 연구의 특징

- ▶ 본 연구에서는 극동 러시아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를 위해 최근 변화되고 있는 극동 러시아 지역개발 여건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분석을 통한 가능성을 파악함
- ▶ 기존 연구는 개괄적인 수준에서 극동 러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연계 발전에 대한 검토가 주로 수행되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류, 지역개발, 환경,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태분석과 한반도와의 연계 발전 가능성을 검토함
 - 또한 산업·자원·인프라 분야에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였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 극동 러시아는 다른 러시아 지역과 비교했을 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곳으로 평가됨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주로 모스크바 등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극동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함
- ▶ 국외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은 일본과 중국을 중점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의 경우 2005년 러시아 연방법 개정 이후 일본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역시 모스크바를 위주로 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극동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사할린과 연해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하기에 적합하며 특히 헤이룽 장성은 중국과 러시아 협력에 있어 중요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종합적으로 진출 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해외농업개발 분야로의 진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 분야의 진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러시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극동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국과 극동 러시아 기업들의 대표 협력 사업으로 목재가공업, 조선업, 수산가공업, 양식업, 건설산업 등이 진출 가능한 분야 일 것으로 예상됨
- ▶ 북방경제권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어 및 통관, 서방의 제재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한 투자리스크가 높은 편으로 평가됨
 - 특히 법률과 행정제도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사용률이 낮아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않는 이상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 환동해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를 통한 한반도 물류산업의 해외진출 정책 지원
- ▶ 환동해 지역에 대한 지역 개발 및 도로, 철도 등의 정보 제공 및 정책 제언을 통한 정책 수립에 활용
- ▶ 환동해권 연계 양자 또는 다자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간 협력사업 발굴 및 의제 제안 기초자료로 활용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 환동해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반도 배후지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 ▶ 우리나라 기업들의 극동러시아 진출에 대한 전략 제공 및 러시아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는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EXECUTIVE SUMMARY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Entry into the East Sea Rim Market

1. Purpose

- ▶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Korean shippers, logistics and regional development companies that have advanced into the Russian Far East, looking into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the market, difficulties and factors of success or failur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present strategies and potential projects for cooperation to companies that aspire to advance into this region.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 ▶ The study first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the following areas in advance; strategies of the Russian Far East to attract foreign

companies, promotion policy and relevant laws and systems, economic structure and conditions and the status of logistics infrastructure (ports, roads and railways).

- ▶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reviewed the current conditions of Korean companies in advancing into the Russian Far East. Moreover, the study was able to draw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after investigating the status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that had entered into the Russian Far East and analyzing Korean companies' process of advancement and the ensuing risks.
- ▶ With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s a basis, the study produced measures for Korean companies to reduce risks for successful entry into the Russian Far East as well as a model for advancement. Moreover, cooperation tasks and potential projects for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im were presented.

〈Table〉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ologies

Characteristic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Basic analysis	- Reviewing the New Northern Policy and the New Eastern Policy - Major policies of the Russian Far East - Economic conditions of the Russian Far	- Relevant literature reviews -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and relevant policies of the Russian Far East	- Reviewing Korean companies' conditions for advancing into the Russian Far East - Reviewing major policies of the Russian Far East such as leading development regions and free ports and others - Looking into major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of the Russian Far East, such as foreign investment act and investment

Characteristic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East –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of the Russian Far East – Conditions of infrastructure in the Russian Far East		incentives etc. – Studying infrastructure conditions of the Russian Far East such as ports, airports, railways and energy etc.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advancement	– Current status of Korean companies' entry into the Russian Far East – Current status of foreign companies' entry into the Russian Far East – Analyzing the cases of Korean companies' entry into the Russian Far East	– Studying relevant literature – Interview with experts	–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dvancement into the Russian Far East – Analyzing the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shippers, logistics and regional development companies' entry into Russia
Business trip to domestic and foreign sites	– Identifying potential models for advancing into the Russian Far East – Understanding major success	– Interview with experts	– Deriving major difficulties of advancement – Major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 Need to hear opinions of experts on potential areas for advancement and areas feasible for cooperation

Characteristic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factors of companies who succeeded in entering into the Russian Far East – Understanding major causes of failure of those failed in entering into the Russian Far East		
Consultation to experts	– Policy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advancing into the Russian Far East	– Hearing opinions of and having consultations with experts of each sector	– Need experts' advice on realistic policy suggestions and feasible business models for Korean companies' entry into the Russian Far East

2) Features

- ▶ The present study aims to develop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to advance into the Russian Far East and cooperation measures.
 - For this purpose, the study looked into changing conditions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t the same time, cases of Korean as well as foreign companies such as Japan, China of entering into the region were analyzed.
- ▶ Most existing studies were general reviews of the Russian Far East regions and the development connected with the Korean Peninsula.

- However, the present study differentiates itself from other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various sectors such as logistics,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energy and agriculture as well as potential development linked to the Korean peninsula.
- Specific entry strategies were establish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n the areas of industry, resource and infrastructure. And effective cooperation strategies and measures were sought for.

3. Results

1) Summary

- ▶ The Russian Far East is evaluated to have low competitiveness compared to other Russian regions.
 - Therefore, most Korean companies have made inroads into Russia centering on Moscow with a very small number of companies present in the Russian Far East.
- ▶ The following is the status of foreign companies' entry into the Russian Far East mostly in China and Japan
 - Since the amendment of the Russian Federal Law in 2005, Japanese companies have expanded the advancement into Russia
 - Japanese companies have also made inroads mainly into Moscow, and most of Japan's investment to the Russian Far East has concentrated to Sakhalin and Primorsky.

-
- China's geographical conditions fit for cooperation with Russia.
In particular, Heilongjiang Province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 hub in cooperating with Russia.
 - ▶ Looking into the overall status of Korean companies' advancement into Russia, Korean companies are actively entering into agricultural development sectors in overse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Korea falls behind in entering into the infrastructure sector.
 - ▶ However, together with the Russian government's policy to promote the manufacturing industry, abundant resources deposited in the Russian Far East makes it promising to enter in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 To be specific, representative project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Russian companies include the wood processing industry,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 ▶ Although posing as an opportunity to Korean companies for expanding the market, Northern economic zone is also evaluated to have a high investment risk due to poor business environments such as language and customs barrier and sanction of the Western world.
 - Difficulties resulting from laws and administration systems were especially high. Since the percentage of English speakers is quite low in Russia, companies who entered the market find it challenging to do business unless they speak Russian.

2) Policy contribution

- ▶ This study supports a policy for the Korean logistics industry to go overseas by establishing cooperative networks centering on East Sea Rim region and conducting joint studies.
- ▶ The study provides in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roads and railways on the regions of East Sea Rim and suggests relevant policie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 ▶ Having suggested bilateral or multilateral measures in connection with East Sea Rim regio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ic data for discovering cooperation projects and suggesting agendas.

3) Expected benefits

- ▶ The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into the hinterlands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foreign countries by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 centering on the East Sea Rim
- ▶ The study provides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into the Russian Far East, while laying a stable foundation for reducing the Russian risk.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극동 러시아 지역은 과거 우리나라 북방정책의 핵심지역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및 경쟁구도 타파, 장기적으로 평화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12년부터 신동방정책을 내세워 극동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 담당 부총리를 별도로 마련하고 극동개발부까지 만들어 극동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등

극동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등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연계하려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 추진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극동 러시아 개발에 대한 참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¹⁾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교통인프라 연결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들의 극동 러시아 개발 참여, 남·북·러 협력사업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과 이를 활용하려는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전개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개선 분위기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러시아 정부는 동방경제포럼 등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의 최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며 한·러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구도에 놓여있던 남북의 관계가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로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 정부는 남·북·러 3국의 협력사업의 필요성

1) 현대경제연구원(2017), p. 4.

을 제기했으며,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은 이런 협력사업을 위한 주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극동 러시아 지역을 對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이자 전진기지로 삼아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어젠다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사안인 남북경제 통합과 북방지역과의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극동 러시아 지역은 다른 러시아 지역과 구별되는 지리적, 경제적, 지정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는 광범위한 영토와 더불어 풍부한 천연·에너지 자원을 보유했지만 비교적 소규모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는 한·중·일 등과 인접하게 위치하여 이 국가들과의 교역이 활발하며,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정학적으로도 한·중·일 등과 인접하여 한반도 평화 등과 관련하여 군사안보 및 국제정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극동 러시아와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육성 정책 추진과 더불어 주요 국가들도 극동 러시아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 및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극동 러시

아 진출도 점차 가속화·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에는 법률, 행정, 제도의 복잡함 등으로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극동 러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근 변화되고 있는 극동 러시아 지역개발 여건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외국기업의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한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선도개발구역 확대 지정, 투자 유인을 위한 각종 선진시스템 도입 등 극동 러시아의 자체 노력과 더불어 최근 북한 및 남북관계의 변화를 비롯한 주변 정세가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극동 러시아 진출 방안과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3년으로 계획된 연구 과제로서 1차년도인 경우 환동해권 개발 및 물류시장의 성장 잠재력 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 및 물류시장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인 본 연구의 목표는 환동해권 중 극동 러시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협력국 간의 가능한 물류 및 지역개발 사업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극동 러시아 지역의 기업 진출 관련 법·제도, 정책 분석과 경제, 인프라 현황을 검토한 후, 국내외 기업의 진출현황을 조사하고 특히 국내 기업의 진출 사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물류 및 지역개발 분야의 협력이

능 사업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향후 3차년도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환동해권 물류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1〉 참조).

〈표 1-1〉 사업 개요

구분	1차년도(2017)	2차년도(2018)	3차년도(2019)
연구 목적	• 환동해권 물류시장 성장 잠재력 분석 및 해당지역 성장방향 제안	• 환동해권 주요 물류기업 진출 사례 분석 및 협력국 간 물류 가능사업 제안	• 환동해권 물류시장 비즈니스 모델 제안
연구 내용	• 환동해권 국가별 경제협력 및 환동해 정책추진 현황 • 환동해권 물류시장 현황 조사·분석 • 환동해권 국제 물류시장 성장 잠재력 분석 • 환동해권 국제 물류시장 성장방향 제안	• 환동해권 연계지역 교역 및 물류현황 • 환동해권 물류 분야 투자유치관련 제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환동해권 주요 물류기업 진출 사례 분석 • 환동해권 협력국 간 물류 분야 가능사업 제안 및 장애요인	• 환동해권 물류시장 비즈니스 모델 제안 • 환동해권 물류기업 및 인프라 운영 통합방안 제안 • 환동해권 물류시장 통합 방안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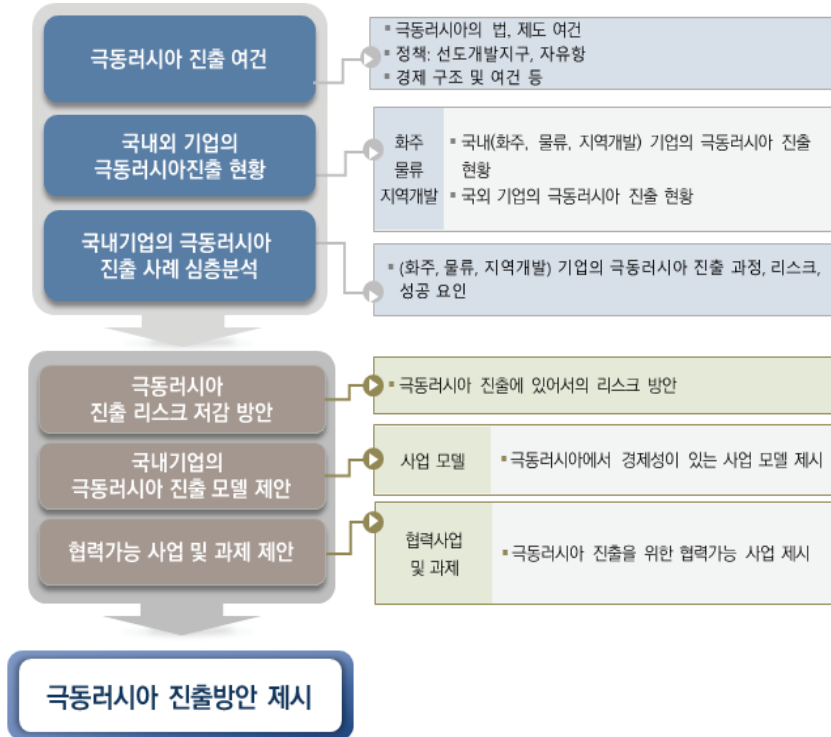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서,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극동 러시아 지역의 법·제도, 정책 등의 검토와 이 지역 진출한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진출기업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통계자료의 검토, 투자 관련기관 사이트의 기업투

자정보 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극동 러시아 현지 정보와 데이터 구축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로 기업 관계자 대상 포럼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을 비롯한 환동해권 주요국들의 對극동 러시아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환동해권 협력가능 사업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해외기업 유치, 육성 정책 및 관련 법·제도, 경제 구조와 여건, 물류 인프라(항만, 도로, 철도 등) 현황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극동 러시아로의 기업 진출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극동 러시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의 현황 조사와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과정 및 진출 리스크를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극동 러시아 진출을 위한 리스크 저감 방안 및 극동 러시아 진출 모델을 도출하고, 환동해권 협력과제 및 협력 가능사업을 도출하고자 한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작성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극동 러시아 진출 또는 한·러 협력 방안 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김원배 외(2003)는 현지 전문가 인터뷰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한러 협력 잠재력을 분석하고, 자원과 인프라 부문에서의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항만 개발 타

당성 분석과 세부적인 진출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극동 러시아 지역 물류 및 항만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자루비노항 항만 물동량 추정 및 극동 러시아 진출 수요를 조사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표 1-2〉 참조).

기존 연구는 개괄적인 수준에서 극동 러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연계 발전에 대한 검토가 주로 수행되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물류, 지역개발, 환경,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태분석과 한반도와의 연계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산업·자원·인프라 분야에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개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 -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 (2007) - 연구목적: 보스토치니, 자루비노 및 코즈미노만 인근 물류센터 건립 예정지에 대한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전문가 인터뷰 - 외부기관 공동연구	- 사업여건 분석 - 사업대상 항만/물류단지 개발계획 검토 - 사업대상 항만/물류단지 기본계획 - 사업 타당성 분석 및 평가 - 진출방안의 세부적 전략
	2 - 과제명: 극동 러시아 자루비노항 물동량 분석 및 진출 수요조사 연구 -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 (2009) - 연구목적: 자루비노항 물동량 추정 및 적정 항만시설 규모 제안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설문조사	- 러시아 경제 여건 - 러시아 극동지역 물류 및 항만 현황 - 자루비노항 항만 물동량 추정 - 극동 러시아 진출 수요조사
	3 과제명: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 국내외 문헌 검토 - 민간기업 설문조사	- 환동해안권 실태 평가 - 환동해안권 향후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본 연구	대외전략 • 연구자(년도): 김원배 외 (2005) • 연구목적: 우리 동해안권의 발전전략 제시	실시	협력잠재력분석 • 환동해안권 발전 전망 • 환동해안권 공동발전을 위한 우리 동해안권의 전략
	4. 과제명: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자원·인프라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 연구자(년도): 김원배 외(2003) • 연구목적: 러시아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한러협력방안 제시	• 현지 전문가 인터뷰 •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러시아 연해주의 실태 •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한러협력 잠재력 분석 • 자원과 인프라 분야의 한러협력 추진방안
	5. 과제명: 환동해 Peace Sea Vision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자(년도): 최승업(2004) • 연구목적: 환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 국내외 문헌 검토 • 관련 전문가 인터뷰	• 환동해안권의 협력 여건 분석 • 환동해안권의 미래 비전 전망 • 우리의 정책과제
본 연구	• 기존 연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개괄적인 수준에서 극동 러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연계발전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물류·지역개발·환경·에너지·농업 등 산업·자원·인프라 분야에서 통합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전략과 방안을 모색	• 국내외 문헌조사 • 해외사례분석 • 현장조사 • 경제효과 계량 분석 • - 전문가 인터뷰 등	• 극동 러시아의 물류, 환경, 농업 등 실태 분석 • 극동 러시아와 한반도의 연계발전 잠재력 분석 • 극동 러시아와 한반도의 연계 발전 전략 • 산업·자원·인프라 분야의 한러협력 추진과제 제시 • 협력과제 추진 방안 제시

자료: 저자 작성.

제 2 장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여건 검토

제1절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1.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신북방정책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외교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힌 구상으로써 동북아 중심 경제·외교정책을 뛰어넘어 북방지역을 ‘변영의 축’으로 삼는 정책이다. 본 정책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인접한 북방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 대상 지역은 러시아, 카프카스 지역, 몽골,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국가들(우크라이나 등), 중국의 동북 3성이다. 이전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외교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 광범위한 지역과의

협력을 추구했지만, 신북방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협력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북방정책 로드맵에서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은 물론 나아가 중국, 러시아까지 이르는 초국경협력 사업의 추진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표 2-1〉 참조). 4대 목표 중 첫 번째는 소다자(小多者) 협력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해 북·중·러 3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 경제협력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는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환동해권의 에너지·해운·조선·물류 관점에서 유기적인 연결망 구축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하는 것이다. 기술진전 및 시대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환경·금융·의료·농수산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의 발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적·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인력 등의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표 2-1〉 신북방정책 로드맵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
•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 환동해 관광협력 활성화
•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 북극항로 진출로 해운·조선 신시장 개척
•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 인프라, 환경 협력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 •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활성화 및 인력양성

자료: 에너지경제, “신북방정책 구체화 됐다…북방위·정부부처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 수립”(2018. 6. 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8633>(검색일: 2018.5.3.)

2.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소련 해체 직후 러시아는 1990년대 초까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발전만을 우선시켰으며, 이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통합 노력보다는 한·중·일 등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과의 양자 무역과 투자 확대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경제위기, 정치 불안 등의 문제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경제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발전을 통해 대내적인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 하에 ‘신동방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푸틴은 2000년~2008년에 이어 2012년 3기 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경제 노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신동방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을 전담할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즉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에 대한 의지는 푸틴 집권 3기와 함께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2-2〉 참조). 이러한 신동방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에너지, 우주·항공, 군수 분야 등 러시아 전략산업의 아태시장 진출 확대이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진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2〉 푸틴 집권기의 극동개발정책

1기 (2000~2004)	2기 (2004~2008)	3기 (2012~2018)	4기 (2018~)
신동방정책			
• 신동방정책 수립	•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전략 추진(2009)	• 극동개발부 신설 (2012) • (2025 극동개발계획)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채택 (2013) •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전면 개정(2014)	• 2025 극동개발 계획 업그레이드

자료: 고재남, 「제4기 푸틴 정부의 국내외 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4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p. 15; 최영림, 「러시아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과 對아시아 LNG 수출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25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p. 3

집권 4기를 맞은 푸틴은 2018년에 개최된 4차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극동개발이 러시아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극동개발을 러시아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2025 극동개발 계획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밝히며 핵심적인 국가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주택, 공공시설, 교통 접근성, 보건, 문화, 스포츠 등에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들이 대거 포함될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같은 지향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신북방정책은 현재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경제·외교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힌 구상으로써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고,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극동개발정책과 우리나라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극동 러시아 진출에 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제2절 극동 러시아 주요 정책

1. 선도개발지역

1) 목적 및 지정 현황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선도개발구역2)(이하 TOR3))'에 대한 법을 입안⁴⁾하였다. 이러한 선도구역개발에

대한 정책은 2013년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극동지역 개발 제안에서 시작되어 선도개발구역법 등의 연방법 제정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근간을 구축하였다. 즉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경제, 사회발전 도모,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정비, 세제 혜택 등의 보장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혹은 러시아의 현행 특별경제구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간이 70년으로 길고 대폭 강화된 정부 지원⁵⁾이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수출지향 산업육성을 통한 극동지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총 18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2-1〉 및 〈표 2-3〉 참조)

현재 극동지역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인구 감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도개발구역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제공하여 극동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의 선도개발구역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해당 정책에 대한 큰 맥락에서의 육성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개발 개념이나 개발 전략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2) 러시아 정부는 2015년 이래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을 개최, 주요국 인사를 초청해 TOR 등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3)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한 개념임. KOTRA(2017b), p. 150. 참조

4) 2015년 3월 25일부로 러시아 연방법 발효됨

5) 핵심 정부 지원책은 입주 업체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건설, 법인세를 포함한 세제 혜택 및 외국인 노동 쿼터 무한 발급 등임. 기존 무수히 많았던 극동개발정책을 이 정책으로 같음하겠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생각으로, 기존 대표적 극동개발정책이었던 '2025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은 사실상 폐기됨

불구하고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이므로 극동 개발에 관한 관심 증가 및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위치



자료: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2018, p. 2

〈표 2-3〉 선도개발지역 지정 현황

연방 주체명	선도구 명칭	소재지	특성화 분야	설립 승인일
연해주	나데즈딘스카야	나데즈딘스카야 구	경공업, 물류, 식료품	2015.6.25
	미하일로프스카야	미하일로프스키 구, 스파스키 구, 체르니고프스키 구	돼지사육 및 가공, 사료공장	2016.8.21
	볼쇼이 카멘	볼쇼이 카멘시	조선	2016.1.28
	네프제히미체스키	파르티잔스키 구	석유화학	2017.3.11
하바로프스크 변강	하바로프스크	하바로프스크 구, 라키트넨스키 마을	물류, 제철	2015.6.25
	콤포몰스크	콤포몰스크 나 아무레시	항공기 및 관련 부품, 목재가공	2015.6.25
	니콜라예프스크	니콜라예프스크 나 아무레	생선 가공 및 물류	2017.4.24
아무르주	프리아무르스카야	블라고베셴스키 구, 이바노프 구	시멘트 클링커, 석유정제, 물류	2016.8.21
	벨로고르스크	벨로고르스크 시	콩가공, 동물사료, 베이커리 등	2016.8.21
	스바보드니	스바보드니 가스	가공 및 가스 화학	2017.6.5
캄차트카 변강	캄차트카	엘리조프스키구,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 차트스키 시	관광, 공업, 컨테이너 항만(북극항로)	2016.8.28
	시코탄	시코탄 섬	어류, 수자원 가공	2017.8.23
추코트 자치구	베린고프스키	아나디르스키 구	석탄, 천연가스 채굴 및 가공	2016.8.21
사하 (야쿠티아) 공화국	칸가라시	야쿠츠크시	세라믹블록, 니스 및 페인트, 플라스틱 관, 건자재 등	2016.8.21
	남야쿠티아	네룬그린스키 구	광업, 공업	2016.12.29
사할린주	유즈나야	나니프스키시	농업	2016.3.16
	고르니 보즈두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관광	2016.3.16
유대인자 치주	아무로- 힌간스카야	비로비잔시, 레니스키구, 옥타브리스키 구	공업, 식품가공업	2016.8.27

자료: 변현섭,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 현황 및 대외협력 현황」, 중소기업연구원 통일/동북아 연구회 발표자료, 2017. 9. 8., pp. 5~6, 재인용: 김상훈,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과제」, 『KOSBI 중소기업포커스』, 제17~14호, 중소기업연구원, 2017, p. 10

2) 주요 혜택

선도개발구역 입주할 경우 세제 감면(법인세, 재산세 등)과 연방·지방정부 예산을 이용한 인프라 설치 등의 주요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세 감면은 입주 후 최초 이익 발생시점을 시작으로 5년간 연방 법인세(2%)가 면제되며, 지방 법인세(19%)의 경우 최초 이윤 발생 시부터 5년간 5% 이내로 면제가 된다. 그 후 5년간은 10% 이내로 감면된다.

재산세는 지방정부마다 과세율 차이가 존재하지만, 연해주의 경우에는 첫 5년 동안 면제되며, 5년 이후부터 5년간 0.5%의 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세는 2025년 12월까지 기업 부담률을 현재 30%에서 7.6%로 단일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표 2-4〉참조).

〈표 2-4〉 선도개발지역 입주 주요 혜택

구분		내용
법인세	연방법인세	입주 이후, 최초 이익 발생으로부터 5년간 면제
	지방법인세	최초 이익 발생으로부터 5년간 5% 이내, 이후 5년간 10% 이내 감면
재산세 및 토지세		5년간 면제, 이후 5년간 0.5% 과세
사회보장세		10년간 7.6%(기존 30%)
인프라 설치		TOR 입주기업의 경우 연방(50%), 지방(50%) 예산으로 전력,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의 인입인프라 우선 설치 자원 조달은 TOR 관리회사 설립 자본에 대한 납부금 지불 방식 등

자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5212>(검색일: 2018. 6. 1.);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9.12.2014 N 473-ФЗ (ред. от 13.07.2015)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 자유항(Free port)

1) 목적 및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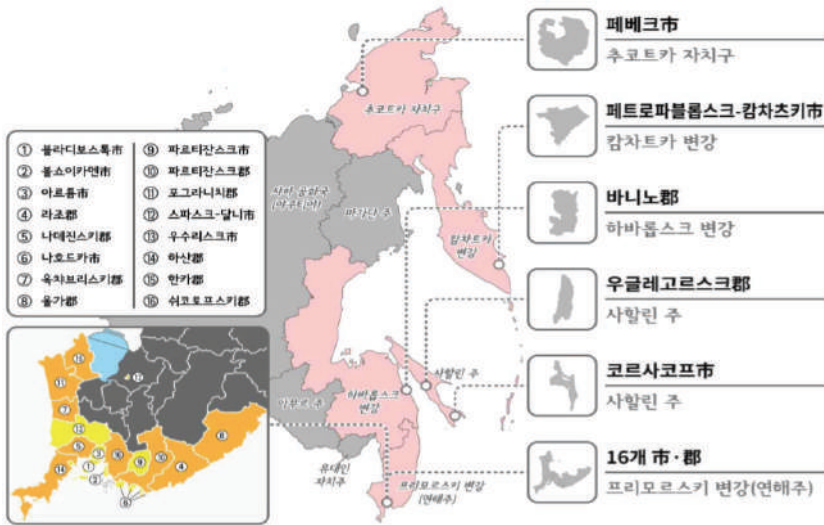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정책은 선도개발구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극동개발부가 고안한 프로젝트로, 2014년 12월 푸틴 대통령이 제안하여 2015년 7월 연방법으로 발효된 경제특구의 한 형태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정책은 선도개발구역 정책 이후에 추진된 정책으로,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및 특혜가 제공되는 연해주의 일부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의 성공을 위해 펼치는 가장 핵심 정부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선도개발구역과 연결하며 러시아와 아태지역을 연계하는 무역과 물류 특화를 지향하고 있음과 동시에 홍콩, 싱가포르와 유사한 대형 항구 도시 육성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 남부지역의 자유항(Free Port)으로 지정되었다. 다시 말해 별도의 특구 조성이 아니라 지정된 도시(항만, 국경) 전체에 적용하되 무관세 통관절차 적용 지역에 대해서만 지리적으로 한정된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가 보유한 지리적 및 경제적 장점을 활용한 교역 확대 및 국제화물 유치를 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 투자 및 화물 유치를 목적으로 통관 간소화, 수출 목적의 원재료 수입 관세 면제, 법인세 감면, 외국인 무비자 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항 인근 지역에서 항만물류, 과학기술, 수산업, 관광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 외부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 등 간접적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2월 기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구역은 총 5개 지역의 21구역에 이른다(<그림 2-2> 참조).⁶⁾

<그림 2-2>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현황



자료: 극동개발공사,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erdc.ru/>, 재인용: 서종원·한은영, 「2018 러시아 교통인프라 개발동향과 한국과의 협력방향」, 『이슈페이퍼』, 제2018-03호, 한국교통연구원, 2018a, p. 16

2) 주요 혜택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법인세, 사회보장세 등 세금 혜택은 선도개발구역법과 거의 동일하다. 특히, 교역화물 유치를 위해 관세 면제, 각종세금, 임대료 등을 감면해주는 우리나라의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하다. 단, 선도개발구역의 경우 인프라 건설을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반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에서는

6) 201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 발효 후 연해주 외 하바롭스크 변경, 사할린 주, 캄차트카 변경, 추코트카 자치구 등 총 5개 지역으로 확대됨. 서종원·한은영(2018a), p. 15. 참조

민간재원 및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된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는 통관 부문에 있어 주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국경통과소 24시간 업무수행, 사전통보제도, 단일창구제도(single window) 도입, 전자통관, 통관 관련 기관 간 중복 업무 배제 등 통관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⁷⁾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대부분 2085년까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극동지역의 지속적인 물류 인프라 개발 및 인접 국가들과 무역 규모 확대를 통해 향후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물류 루트로의 편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⁸⁾

3. 차이점

1)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점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는 각각 국내의 진출기업에 우호적 비즈니스, 투자 환경 제공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선도개발구역이 극동지역 내 수출지향적 산업 육성을 추구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교역 및 국제화물 유치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은 개념상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FEZ)과 러시아의 현행 특별경제구역(SEZ)과 유사하지만, 입주 기간이 최대 70년으로 길고(FEZ, SEZ는 50년) 정부의 지원 또한 대폭 강화되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7) 특구의 별도 조성이 아니라 지정 도시(항만, 국경) 전체에 적용하되 무관세 통관절차 적용 지역에 대해서만 지리적으로 한정함

8) 서종원·한은영(2018a), p. 16.

2)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의 차이점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제도는 세제 혜택, 행정지원, 교통 물류비 등에 있어 아태지역 여타 경제특구와 비슷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은 재산세, 토지세, 사회보장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흡사한 제도를 지니고 있으나 비자 혜택, 세제 혜택(소득세), 외국인력고용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도개발구역의 경우 비자 혜택이 없으나 자유항은 자유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7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의 소득세는 5년간 5%, 그 이후 5년간 10%인 반면 자유항은 처음 5년간 0% 그 이후 5년간 12%로 지정하고 있다.

나아가 극동개발부는 법안 마련 시 우리나라, 중국,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투자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투자환경 개선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표 2-5〉 참조).

〈표 2-5〉 아태지역 주요국 비즈니스 투자 환경 비교

주요국 경제특구환경(단위)	한국	중국	싱가폴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현행)	러시아 (목표)
법인세(%)	10	15	17	33	23.5	26.4	13.5	10
교통물류비(\$)	700	550	440	1,320	1,660	970	1,800	440
전기요금(\$)	7.3	7.4	13.6	6.9	7.4	17.9	11.7	6.9
근로소득세(%)	8.8	26.7	16	7.7	8.7	25.6	14	7.7
건설 인허가취득(일)	29	67	26	27	163	193	244	26
전력인입(일)	28	41	36	68	142	105	254	26
수출지원 방안(평점)	5	4	4	4	5	3	2	5
지적재산보호(평점)	2	3	4	5	4	5	3	5
인력가용성	상	상	상	상	중	상	하	상
공급자 가용성	상	상	상	상	중	상	하	상

자료: 극동개발부, 재인용: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2018, p. 62

제3절 극동 러시아 경제 여건

1. 경제 동향

러시아 경제는 2010~2014년까지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2015년 서방의 경제제재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3.7%로 급격히 하락하였다(〈표 2-6〉 참조).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러시아의 모든 경제지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 4분기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해 7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

〈표 2-6〉 러시아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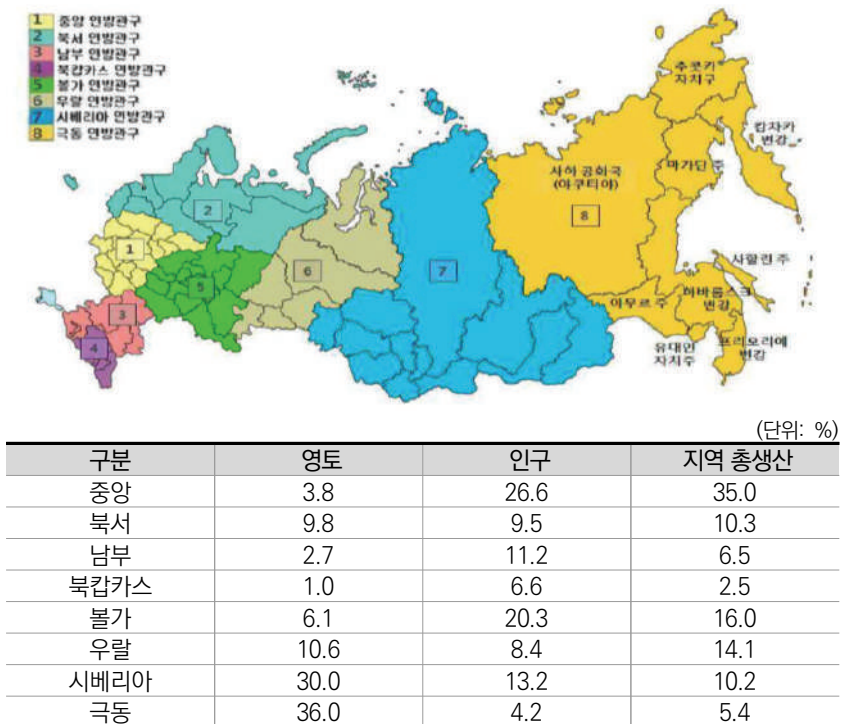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	5.2	-7.8	4.5	4.3	3.4	1.3	0.6	-3.7	-0.2
명목 GDP (\$10 억)	1,661	1,223	1,479	1,885	1,954	2,097	1,857	1,176	1,132
외환보유액 (\$억)	4,263	4,395	4,794	4,987	5,376	5,096	3,855	3,684	3,777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70,528	51,341	59,648	68,197	81,493	85,257	63,013	48,587	51,063
총외채잔액 (\$억)	4,805	4,672	4,889	5,389	6,364	7,289	5,990	5,185	5,156
총외채잔액 /GDP(%)	28.9	38.2	32.1	28.3	31.6	35.1	32.2	44.1	42.3
경상수지 /GDP(%)	6.3	4.1	4.4	5.1	3.5	1.6	3.1	5.4	2.9
재정수지 /GDP(%)	4.6	-5.5	-3.0	1.6	0.2	-1.5	0.1	-2.5	-3.9
정부채무 /GDP(%)	8.0	10.6	11.3	11.6	12.7	14.0	17.9	18.8	13.5

자료: <https://www.imf.org/external/index.htm>; <https://www.cbr.ru/eng/>(모든 자료 검색일: 2018. 6. 15.)

그러나 이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 및 투자부진, 경기회복의 산업별·지역별 편중 등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세가 큰 폭으로 향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극동 러시아 지역은 러시아 영토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인구 비중은 4.2%(약 6백만 명), 지역 총생산 비중은 5.4%에 불과한 수준이다(〈그림 2-3〉 참조). 또한 러시아 경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서부에 비해 투자율이 매우 저조해 인프라가 취약하다.

〈그림 2-3〉 러시아 연방관구별 경제 비중 (2015년 기준)



자료: KIEP,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7, 재인용: 김현일, 「북방경제협력 관련 주요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 『주간 KDB리포트』, 제742호, KDB산업은행, 2017, p.20.

2. 경제구조

1) 자원의존형 산업구조

러시아는 20대 주요 산업 지역⁹⁾에서의 생산이 전체 산업 생산의 약 70%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20대 주요 산업 지역이 러시아 전체 제조업의 67.5%, 자원·에너지 개발 산업의 69.6%, 전력·가스·수도 분야의 60.4%를 차지한다.¹⁰⁾

극동 러시아 지역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생산 및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한 사할린주, 사하 공화국은 원료 수출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개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할린주와 사하 공화국¹¹⁾을 제외하면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보다 산업발전단계가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¹²⁾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의 경우 ‘공업-농업’ 유형의 ‘중간 발달’ 단계이며, 캄차트카주는 ‘농업-공업’ 유형에서 ‘중간 발달’ 단계이다. 나머지 극동 러시아는 대부분 ‘저발달’ 지역이며, 유대인자치주는 ‘저발달농업’ 유형, 그 외 3개 주는 ‘저발달 자원’ 유형에 해당된다(〈표 2-7〉 참조).

2013년 기준 에너지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¹³⁾ 포함)의 경우 러시아 전체 수출의 71%, GDP의 24%, 재정수입의 49%를 차지했다.

9) 니제고로드주, 로스토프주, 레닌주, 마라주,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케메로보주, 스베르들롭스크주, 옴스크주, 야말로 네네츠크 자치주, 이르쿠츠크주, 첼랴빈스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타타르스탄 공화국, 튜멘주, 페름주, 한티만시스크 자치주 등이 포함됨(Динамика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региональные различия, Бюллетень о текущих тенденциях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июль 2017. p. 12.).

10) 위의 자료, p. 11.

11) 극동 러시아에서는 에너지나 광물 자원이 많은 사할린주와 사하 공화국은 원료 수출이 ‘매우 발달’ 단계로 분류함. 조영관(2017b), p. 10. 참조

12) 러시아 정부 산하 분석센터에 의하면 러시아 지역별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4단계(‘매우 발달’, ‘발달’, ‘중간 발달’, ‘저발달’)로 구분, 각 단계별로 세부 산업 유형별 구분을 실시

13) 사할린주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은 에너지 주요 수입국인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조영관(2017b), p. 20. 참조

〈표 2-7〉 러시아 지역 구분(2017년 기준)

연방 관구	매우 발달		발달		중간 발달		저발달	
	금융 경제형	자원 수출형	산업 다각화형	제주업 위주형	채굴 위주형	공업- 농업형	농업- 공업형	저발달 자원형
중부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리페츠크, 아로슬라블	벨고로드	블라지미르, 이바노프, 길루가, 코스트로미, 라잔, 스몰렌스크, 트베리, 툴라	보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오를롭스크, 탐보프	저발당 농업형
북서	상트페테르 부르크	코미, 네네츠크		볼로고드, 레닌그라드, 노보고로드,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카렐리아, 칼리닌그라드	프스코프	
남부			로스토프				크라스노다르스크, 크림 아스트라한스크, 볼고그라드	아드게야, 칼미키, 세바스토폴
북코카 서스							북오세티야, 스타브로	다게스탄, 인구세티야, 카바르디노발카리아, 체첸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볼가			타타르스탄, 니제고로드, 사마라		바쉬코르 토스탄, 페름	우드무르치야	마리 엘, 몰도비아, 추바쉬, 오렌부르크, 페자, 시리토프, 올리아노프	
우랄		한티만시스크, 아말네네조크	스베르들 롭스크, 투멘	첼랴빈스크			쿠르간	
시베 리아			노보시비 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 크, 이르쿠츠크, 옴스크	케메로보, 톰스크	하카시아	부랴티야, 알타이	자바하 킬스크
극동		사하, 사할린				캄차트카, 연해주, 하바롭스크		아무르, 마가단, 추코트카

자료: Analytical center for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ac.gov.ru>, 재인용: 조영관, 『극동러시아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방안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b, p. 29

2) 빈약한 제조산업

러시아의 제조산업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후 제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가 최근 경제개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극동 러시아는 러시아에서도 제조업이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주요 산업부문은 농업, 수산업, 물류, 에너지, 목재 등이 있으나 제조업 발전이 취약하기 때문이다.¹⁴⁾

2016년 기준, 극동 러시아 지역은 러시아의 지하자원 채굴량의 13.5% 수준을 점유하는 반면,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 점유율은 1.7% 수준으로 제조업 운영 여건이 취약하고 발전단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낮은 인구로 인해 제조업 육성을 위한 노동력 공급이 제한되며, 외국 기업들 또한 에너지 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국내외 투자 역시 부족하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 지역의 제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러시아 정부는 일부 특정 제조업 부문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⁵⁾ 최근 러시아 정부에서는 극동 러시아 지역의 주요 유망 산업으로 석유 및 가스 처리, 금속·광물, 목재, 농수산물가공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극동 러시아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수산물가공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기계제작, 금속, 의료, 제약 등을 발전이 유망한 산

14)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18. 5. 1.)

15) 극동 러시아 지역의 지하자원 채굴은 러시아 전체의 13.5%를 점유, 반면 제조업 점유율은 1.7%에 불과하여 제조업 환경이 취약한 상황임. 조영관(2017b), p. 14. 참조

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제조업을 유치, 활성화하기 위해 극동러시아 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정책 등과 같은 경제특구 도입이며,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다.

제4절 극동 러시아 법·제도 여건

1. 주요 외국인 투자법

1) 주요 개념

글로벌화가 된 세계 경제속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투자대상에 대하여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을 외국인 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다(〈표 2-8〉 참조).

〈표 2-8〉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정의

구분	내용
1	러시아 민법에 따라 러시아 내에 설립되었거나 새로 설립되는 인적 회사 또는 물적 회사의 10% 이상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하는 행위
2	러시아 내에 설립된 외국인법 지점의 고정 자산에 대한 자본 투자 행위

자료: KOTRA,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p. 259

러시아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외국법인, 외국 단체, 외국인, 무국적자, 국제기구, 외국국가 등 여섯 가지로 정의 하고 있다(〈표 2-9〉 참조).

〈표 2-9〉 러시아 외국인 투자자 정의

구분	구분
1	외국법인
2	외국단체
3	외국인
4	무국적자
5	국제기구
6	외국국가

자료: KOTRA,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p. 259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기술 및 경영의 이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도 있지만 자원개발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대화(제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 정부는 극동 러시아 지역의 투자유치 및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투자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했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러시아 중앙정부에서는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제조업 및 첨단산업 부문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설정된 ‘선도개발구역법’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만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¹⁶⁾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표 2-10>과 같이 다섯 가지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와 투자수익에 대해 국가차원의 법률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연방법에서 예외로 명시된 분야 이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이 러시아 자국의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0> 극동 러시아 외국인 투자 형태 I

구분	형태
1	동산 및 부동산, 재산권(저당, 임대 등)
2	회사 및 기업의 지분, 주식 및 기타 형태로의 참여
3	금전채권, 유가증권
4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5	법 또는 계약에 기반하여 상업활동(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생산 포함)을 행할 권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한양대학교,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 25

16) 특별경제구역(SEZ), 선도개발구역(ASEZ),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등 지금도 발전을 거듭 중인 이러한 신생 제도들은 이른바 수입대체화(Import Substitution) 정책의 일환으로서, 러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자국에서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3&cad=rja&uact=8&ved=0ahUKEwj27HdgeTbAhXI7WEKHV1EDt4QFgggMAI&url=http%3A%2F%2Fwww.bukbang.go.kr%2Fboard%2Ffile%2Fbbs_0000000000000012%2F3%2FFILE_0000000000000604%2F2018042418003469051%3Bjsessionid%3DkrwVW8JUipVdl5PCQ0-A3zW8k.node10&usg=AOvVaw0UiUtLqVGmF29NX0TLoN6j(검색일: 2018. 6. 1.)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동등 대우의 원칙, 외국법인의 영업 행위 자유 보장,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 선택 자유 보장, 과실송금의 보장 등을 받는다(〈표 2-11〉 참조).

〈표 2-11〉 극동 러시아 외국인 투자 형태 II

대우 사항	내용
동등 대우의 원칙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 및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대해 러시아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음
외국법인의 영업 행위 자유 보장	외국법인은 그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음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 선택 자유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 내에서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할 수 있음
과실송금의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각종 세금과 사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소득과 이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자료: KOTRA,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pp. 260 ~ 261

러시아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인과 동일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산업이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국방 및 국가안보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러시아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제한법에 따라 정의된 전략적 중요산업은 46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표 2-12〉 참조).¹⁷⁾

〈표 2-12〉 러시아 외국인 투자 제한산업 리스트

구분	형태
1	수문기상 관측
2	지구현상 관측
3	병원체자원 관련 사업 활동

17) KOTRA(2018c), p. 262.

구분	형태
4	핵시설 설치·가동 및 방사성 물질 배출
5	핵시설 및 방사성물질 취급
6	방사성 폐기물 취급
7	과학 연구를 위한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 설계
8	핵시설 설계·건설 및 방사성 물질 설계
9	핵시설 및 방사성물질을위한 장비 마련·설치
10	원자력 시설 안전검사(방위 목적의 원자력 이용시 배출되는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 사용)
11	정보통신 시스템 암호 수단 생산
12	암호 수단 배포
13	암호 수단 기술서비스
14	정보의 암호화 서비스 제공
15	비밀정보 수집 목적의 전자장비 적발
16	비밀정보 수집 목적의 특수기술장비 판매를 위한 개발, 생산 및 취득
17	무기 및 군사장비 개발
18	무기 및 군사장비 생산
19	무기 및 군사장비 수리
20	무기 및 군사장비 재활용
21	무기 및 군사장비 거래
22	사격 무기 생산
23	무기 탄환 생산
24	사격 무기 및 무기 탄환 거래
25	탄약 개발 및 생산
26	탄약 재활용
27	산업용 폭발물 생산 및 배포
28	항공운전 확보
29	우주사업
30	항공장비 개발
31	항공장비 생산
32	항공장비 수리
33	항공장비 시험
34	러시아 연방주 인구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TV 방송

구분	형태
35	러시아 연방주 인구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라디오 방송
36	공공서비스 외 분야 독점권자의 서비스 제공
37	인터넷 및 유선통신 시장 지배권자의 사업 활동
38	무기 및 군사장비 생산시 사용되는 금속, 특수합금, 원자재 생산 및 판매
39	러시아 연방내 유용광물 연구, 탐시 및 채굴
40	수자원 채굴(어획)
41	인쇄사업
42	정기간행물 발행 편집
43	전문기관에 의한 교통 수단,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평가
44	교통안전 담당부처가 실시하는 교통수단, 인프라 시설 보고
45	인허가기관의 교통안전 확보 인증
46	정부조달 계약 시스템에 관한 연방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활동

자료: KOTRA,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pp. 263 ~ 264

2. 주요 투자인센티브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관련된 제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각종 경제구역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복합적인 투자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특히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이나 지방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중심으로 개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31개의 특별경제구역과 기타 연방법으로 운영 중인 3 SEZ 등 총 34개의 SEZ가 지정되어 있다.

특별경제구역¹⁸⁾에 입주 시 법인세, 사회보장세가 감면되고, 자산세, 토지세, 교통세 등의 면제 혜택¹⁹⁾이 적용된다(〈표 2-13〉 참조).

18) 현재 총 34개의 SEZ가 설립, 향후 지역 개발을 위해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19) 입주기업과 해당 특별경제구역의 협의에 따라 가능함. KOTRA(2017c), p. 145. 참조

〈표 2-13〉 세금 인센티브

(단위: %)

인센티브 종류	러시아 일반지역	특별경제구역(SEZ)
법인세(Profit tax)	20	0~13.5 ²⁰⁾
자산세(Property tax)	2.2	0 ²¹⁾
토지세(Land tax)	0.3~1.5	0 ²²⁾
교통세(Transport tax)	Rates set in RUR per power hours	0 ²³⁾
사회보장세(Salary related taxes - 산업/생산 SEZ, 기술/혁신 SEZ, 관광/레크리에이션 SEZ)	30	14
토지 매입가격	시장가격의 100%	토지대장가격의 40~50%

주: 산업/생산 SEZ, 기술/혁신 SEZ, 관광/레크리에이션 SEZ, 향만 SEZ 운영기간은 49년, 연장 불가
 자료: KOTRA,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 2017b, p. 154

또한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수입세가 면세되는 무관세지역 제도,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중앙 정부는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첨단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는 주로 관세 및 조세에 대한 감면 등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되고 있으나 산업기반 확보 및 육성을 위해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시에는 정부의 재량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 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제도나 정책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표 2-14〉 참조).²⁴⁾

20) SEZ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

21) 세무법 제395조에 의해 5~10년 세제 유예기간 보장

22) 세무법 제381조에 의해 10년까지 세제 유예기간 보장, 최대 49년까지 가능

23) 지방 교통세의 경우 5~10년 세제 유예기간 보장, 최대 49년까지 감면 사례도 있음

〈표 2-14〉 SEZ 투자자 혜택

구분	내용
특별행정제도	정부 당국과의 'one-stop shop' 원칙
인프라	필요 설비가 구비된 토지 및 사무실 제공
무관세지역 제도	수입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 인센티브	법인소득세 감면,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를 10년까지 면제, 조세정책 변동 시 정부 차원의 보호를 약속
입지관련 혜택	임대료 할인, 임대한 토지에 대한 시장가격 대비 낮은 금액으로 취득 가능한 권리 획득
가속상각제도	산업·관광·휴양 SEZ는 가속상각제도에 대한 권리 부여(법인 소득세, 사회보장세 감면 및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 면제)
임대료 감면	협약에 통해 임대료 감면 혜택 적용

자료: KOTRA, 『주요국 투자유치인센티브 제도 조사』, 2017c, pp. 145~146

SEZ BENEFITS AND INCENTIVES



자료: www.ved.gov.ru/eng/investing/sez(검색일: 2018. 5. 1.)

24) 이런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특별히 외국기업만 수여가 가능하다고 따로 명시된 규정은 없음.
KOTRA(2017c), pp. 143 ~ 144. 참조

제5절 극동 러시아 인프라 여건

1. 항만²⁵⁾

1) 항만의 특징

극동 러시아 지역은 러시아 전체 면적의 36%(한반도의 약 28배) 수준이나 인구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하다(〈그림 2-4〉 참조).

극동 러시아는 9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 항만을 가진 주는 연해주, 사할린주, 하바롭스크주, 마가단주, 캄차카주 등 5개 주이며 총 22개의 항만이 있으나 대부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에 위치해 있다(〈표 2-15〉 참조).

〈그림 2-4〉 극동 러시아 9개주 위치



자료: <http://politicstory.tistory.com/808>(검색일: 2018. 8. 4.)

25) 조영관(2016), p. 5.

〈표 2-15〉 극동 러시아의 지역별 항만

지역(항만 수)	항 만 명
연해주(8개)	나훗카, 바니노,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샤호초르스크, 올가, 자루비노, 포시예트
하바롭스크주(7개)	니콜라옙스크 나 아무르, 드 카스트리, 라자레바, 소베츠키야 가 반, 오호츠크, 코르사코프, 포로나이스크
사할린주(5개)	네벨스크, 모스칼보,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 프리고로드노예, 홀름스크
마가단주(1개)	마가단
캄차트카주(1개)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카

자료: 조영관, 『극동러시아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방안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b, p. 56

2) 물류의 특성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항만물류는 러시아의 항만물류 분야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항만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계를 통해 러시아 전 지역과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루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지역의 항만 개발 및 연계 물류망 확보는 극동 러시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러시아 국가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극동 러시아의 항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물류에서의 지리적 특성이다. 극동 러시아에 위치한 항만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물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출구 역할과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아태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한 블라디보

스토크, 보스토치니, 바니노 항 등이 있으며, 중국 동북3성과 연계가 가능한 자루비노, 포시에트 등이 극동 러시아에 입지해 있다.

둘째, 러시아의 타 지역 항만 대비 물동량 증가 추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물동량은 전년 대비 5.2% 정도 증가한 1억 7,1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액체화물의 경우 11.3% 증가한 7,300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화물 또한 1.1% 증가한 9,800만 톤을 기록했다. 2020년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항만 물동량은 2014년 대비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2.6배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러시아 전체 물동량이 2014년 대비 2배(2025년 2.3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극동러시아 물동량 증가세가 러시아의 전체 물동량 성장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러시아 전체 물동량 중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항만 물동량이 점유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25.8%, 2020년 26.4%, 2025년 28.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탄, 곡물 등 극동 러시아의 주요 화물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극동 러시아 항만 물동량 중 수출 비중은 85.7%, 수입 비중은 3.3% 수준이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 지역의 항만들은 석탄, 곡물 등을 수출하기 위한 인프라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 물류단지 역시 시설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2. 공항²⁶⁾

극동 러시아의 각 지방 정부들은 지역 내 공항 인프라를 현대화하

26) 김은미, KMI 극동 러시아 리포트, 제 42호(2017.8.9.)

거나 신규로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극동 러시아 지역의 공항들은 극동연방관구의 물류·교통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하바롭스크 국제공항

하바롭스크 노브이 국제공항의 현대화 사업은 2018년~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국제공항 복합 개발 프로그램에 약 82억 루블이 투입되었다. 해당 현대화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에는 활주로·터미널 확충, 호텔·비즈니스 공간 개발, 전시회장 설치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바롭스크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연간 약 200만 명이며, 동시에 약 3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2) 야쿠츠크 국제공항

2015년에 착공된 야쿠츠크 신(新)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는 약 3억 3,400만 루블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2016년 기준 야쿠츠크 공항 이용객은 연간 약 87만 5,000명으로,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용객이 약 9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할린 공항

2016년 사할린 공항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 공항 활주로는 재건되었으며, 그 결과 보잉-747 항공기 수용이 가능해졌다. 사할린주에는 총 7개의 공항이 입지해 있으며, 쿠릴 열도에 2개의 공항이 위치해 있다. 현재 사할린주 내 신(新)공항 건설을 논의 중이며, 신공항 개발사업에 약 67억 루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캄차트카 공항

2016년 5월 페트로파브롭스크-캄차트카 공항의 활주로 재건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터미널 건설을 위해 약 7억 6,000만 루블이 투자될 예정이다. 캄차트카 공항 터미널은 시간당 최대 약 400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다.

5)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경우 2019년까지 제2활주로 재건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으로, 극동 러시아 지역의 공항 인프라 현대화 작업 중 최우선 순위이다. 제1활주로의 경우 2012년에 재건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2활주로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현대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공항으로 이 지역의 공항 중 가장 많은 승객을 유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약 185만 명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이용했으며, 연간 약 350만 명의 승객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Changi Airports International 사 등으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다.

6) 블라고벤젠스크 공항

블라고벤젠스크에 위치한 이그나테바 공항은 제2활주로가 개발될 예정이며, 활주로 건설비용에 약 37억 루블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2활주로 개발 사업은 2019년에 착공될 예정이며, 활주로의 확대를 통해 모든 유형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철도 및 도로

극동 러시아의 철도 및 도로 교통망은 러시아 수도지역인 모스크바 중심부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다. 2013년 푸틴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에서 극동 러시아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철도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극동 러시아에서의 철도 현대화 사업 대상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바이칼-아무르 라인(BAM) 등 2개이다. 극동 러시아 물류체계는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요 물류망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TSR을 골격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²⁷⁾

극동 철도 노선은 TSR노선의 남부와 BAM 노선의 북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철도노선 중 유일하게 섬지역인 사할린을 잇고 있다. 극동 철도 노선을 통한 러시아 전체 수출화물 운송비중은 약 30% 이상이며 국외화물 운송의 약 25%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또한 극동철도 노선은 태평양 연안 주요 항만들인 바니노항, 나홋카항, 블라디보스토크항 등과 바로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²⁸⁾ (<표 2-16> 참조).

<표 2-16>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와 바이칼-아무르 라인(BAM) 개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 (Trans Siberian Railway)	바이칼-아무르 라인 (Baikal-Amur Railway)
•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철도를 통칭하며 총 연장은 9,288km로 세계 최장 • 화물 수송량은 2015년 기준 1억 3,000만 톤 수준 • 국내 수출 및 내수물량의 50% 이상이 TSR을 통해 운송(석탄 수출은 대부분 TSR 이용)	• 시베리아 타이세트-하바롭스크주 소비에트 가반 항만을 연결하는 4,287km의 철도 • 화물 수송량은 2015년 기준 1,200만 톤 수준 • BAM라인의 특징은 타이세트 가스 채굴지를 비롯한 네룬그리석탄광 등 극동 러시아 시베리아 주요 자원산지를 경유하는 것임

자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2199>(검색일: 2018. 5. 11.)

27) 김선철(2016), p. 3.

28) 황윤희(2016), pp. 3~4.

극동 러시아에서 철도는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이자 극동지역 자원개발 및 수출을 주요 목적으로 철도 현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아직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캄차카지방, 마가단주, 추코트카 자치구에는 철도교통수단이 없으며 극동연방관구의 철도밀도는 러시아 연방과 비교하여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극동연방관구 안에서는 프리모르스키,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등 지역의 철도밀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그림 2-5〉 참조). 한편 극동 러시아의 도로 인프라도 러시아연방 도로밀도의 1/6수준으로 상당히 취약한 편에 속한다. 극동연방관구 안에서는 프리모르스키, 유대인 자치주 및 아무르주가 상대적으로 도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극동 러시아 포함 동북아 철도 연결 사업



자료: 연합뉴스, “(그래픽)남북 추진 예정 철도 연결사업”(2018. 4. 29.),
<http://m.yna.co.kr/kr/contents/?cid=GYH20180429000100044>(검색일: 2018. 5. 11.)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북아 국제운송회랑을 연결하는 프리모리에 I, I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2-6〉 참조). 프리모리에 사업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을 포함한 러시아의 교통망을 중국 창지투, 훈춘 등 역내 육상교통 및 항구와 연결하려는 국제교통회랑 구축 계획이다.

프리모리에 사업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 국가경제 및 연해주 지역 경제성장, 극동 러시아 지역 물류 경쟁력 향상, 국제협력 강화,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통합, 극동 러시아-바이칼 지역 경제사회발전 등이다.²⁹⁾

프리모리에 I 노선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작하여 러시아 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보스토치니로 연결된다. 프리모리에 II 노선은 중국 지린성의 장춘, 길림, 훈춘을 극동항구인 연해주 자루비노 항과 연결하는 노선이다. 프리모리에 I, II 노선은 기존 GTI 교통회랑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체결된 중·몽·러 경제회랑 합의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중국 간 두 국제노선 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6〉 프리모리에 I, II 노선의 개념도 및 개발 개요

프리모리에 I, II 노선개념도		개발의 주요 내용	
	구분	프리모리에I	프리모리에II
	경유	하얼빈-무단장-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	창춘-지린-훈춘-자루비노
	특징	- 헤이룽장성 주요 도시 경유 -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미국 서부 연안과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거리	- 지린성의 주요 도시 경유 - 중-러간 수송 및 한국, 일본으로의 화물수송
	효과	- 2030년까지 두 노선을 이용한 곡물 및 컨테이너 화물량 4,500만 톤까지 증가 - 2030년까지 두 노선을 통한 경제효과 GRDP 290억 루블, 조세수입 57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전망(러시아 극동개발부)	
	합의 전개	-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합의 중 13개 교통물류 분야 합의 노선에 두 노선이 포함(2016.6) - 러시아 정부, 두 노선의 개발 비준(2016.12) - 러시아-중국, 두 국제수송회랑 개발 합의(2017.6)	

자료: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china-agree-primorye-1-corridor-opens-heilongjiang-asia-pacific-markets.html>/(검색일: 2018. 6. 13.); 이현주, 제8차 한-러 극동포럼 발표자료, 2018, p. 37

29) 서종원·한은영(2018b), pp. 3~5.

4. 에너지

극동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의 36%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이고, 러시아 전체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의 각각 16%, 21%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또한 극동지역의 에너지(석유, 가스)망 구축을 위한 개발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East Siberia Pacific Ocean)이 2012년 12월 건설되어 중국 헤이룽장성,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까지 연결되어 현재 공급 중이다(<그림 2-7> 참조). 그리고 사할린과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사할린극동가스파이프라인을 2011년에 완공하였다. 중국으로 향하는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은 2019년 12월에 가동 개시 예정이다.³⁰⁾

한편,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는 2035년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이 2015년 대비 최대 2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할린-2에서는 2023~2024년까지 LNG 생산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사할린-2 LNG 생산뿐만 아니라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사할린-1 추진, 블라디보스토크 LNG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할린-1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수출을 위해 러시아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사는 하바롭스크 주의 드 카스트리 항만에 대한 LNG플랜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³¹⁾

2008년 2월에 착공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건설 사업은 2009년 12월에 1단계 구간[ESPO-1, 타이셰트(Tasishet)-스코보르

30) 김상훈(2017), p. 1.

31) 조영관(2017a), p. 7.

디노(Skovordino)]이 완공되었고, 2012년 12월에 2단계 구간[ESPO-2, 스코보르디노(Skovordino)-코즈미노(Kozmino)]이 완공됨에 따라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현재는 코즈미노항의 원유수출터미널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러시아 원유가 수출되고 있다.³²⁾

〈그림 2-7〉 동부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현황



주 : — 가스도플 소유 가스파이프라인 — 기타 가스회사 소유 가스파이프라인 - - - 건설 또는 계획 중인 가스파이프라인
 가스관 : ⑩시베리아의 힘 2, ⑪시베리아의 힘
 지하 가스저장소 예정지 : ③췌긴스카야, ④콜미콥스카야, ⑤안가르스카야, ⑥블라고웨렌스 카야, ⑦벨루고르스카야, ⑧타스-유라흐스카야, ⑨차안진스카야

자료: 강명구,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정책과 한러 에너지 협력 방안」, 『산은조사월보』, 제743호,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7, p. 14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의 석유화학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osneft의 자회사인 ‘동부석유화학기업’은 연해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 개발구역 내 ‘극동석유화학단지’ 시행자로 약 223억 달러가 투자된

32) 강명구(2017), p. 10.

다(〈표 2-17〉 참조). 또한 아무르 주 스보보드니 지역의 선도개발구역에서 러시아의 최대 석유화학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2024년까지 22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연해주 나호트카 지역에는 사할린 및 사하 공화국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대규모 플랜트 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³³⁾

〈표 2-17〉 극동 러시아 지역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지역	분야 및 생산규모	투자규모 (억 달러)	사업자	소재지
아무르 주	• 가스 플랜트 : 연 420m ³	110	Gzaprom	선도개발구역 스보보드니
	• 가스 화학 플랜트, 폴리에틸렌	80	SIBUR Holdings	
	• 메탄올 : 연 100만 톤	7	ESN Group	
	• 우레아 : 연 200만 톤	20	NCG	
사하 공화국	• 메탄올 : 연 160만 톤	12	YTEK	니즈니 베스짜흐
아무르 주	• 정유공장 : 연 600만 톤	20	AEK	선도개발구역 프리아무르스까야
연해주	• 석유화학 : 연 최대 1,600만 톤	115	Rosneft	선도개발구역 네프찌히미체스키
	• 암모니아, 우레아, 메탄올 : 연 520만 톤	20	NFP	나호트카

자료: 조영관, 『한러 에너지 협력의 특징과 협력 제고 방안』, 2017-지역이슈-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a, p. 15

33) 조영관(2017a), p. 14.

제 3 장

국내외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제1절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2017년 기준 극동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분야는 제조, 물류, 무역, 건설 등 그 분야가 다양하다. 특히 판매, 농업, 운송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현재는 총 34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진출한 기업의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극동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리스트

업종	기업	지역	사업내용	비고
제조	현대웰딩루스	아르쎈	용접봉 생산-즈베즈다에 공급	법인
IT	도시교통시스템	블라디보스토크	대중교통버스 전자결제 사업	
종합 상사	포스코대우		무역	지사/지점
	LS 네트워크			
	대한항공	하바롭스크/ 사할린	인천-블라디 주 7회 운항	
항공 운송	아시아나		인천-하바 3회, 인천-사할린 3회 운항	

업종	기업	지역	사업내용	비고
물류	제주항공	블라디보스토크	인천-블라디 주 4회 운항	
	티웨이항공		대구-블라디 주 3회 운항	
	에어부산		부산-블라디 운항	
	DBS Ferry		동해-블라디 주1회 카페리선 운항	
	현대상선		해운	
	장금상선			
	범한판토스		물류	
숙박	롯데호텔		연해주 유일 5성급 호텔	법인
판매	삼성전자		전자제품 판매	지사/지점
	LG 전자			
	팔도		식품판매	연락사무소
	롯데칠성		식음료 판매	
	업카이트		식품판매	법인
무역	다우스틸		철 스크랩 매입 - 국내수출	연락사무소
	쓰리씨통상		무역	법인
	미르특장차			
건설	계룡건설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아파트 건설분양	지사/지점
금융	우리은행	블라디보스토크	지점 전환 검토중	
	기업은행		2018 하반기 진출 준비중	
수산	한국통산	페트로파블롭스크	수산	
	사조산업	블라디보스토크		
농업	롯데그룹	호롤	하롤아그로, 프리모리에, 미하일롭카아그로	법인
	아그로상생	호롤, 향카 등	-	
	아로프리모리에	우수리스크		
	에코호즈	그리고리에프카		
	유니젠	햇산		
	포항축협	우수리스크		
	바리의 꿈			

자료: KOTRA, 『극동러시아 진출을 위한 현지주요네트워크』, 2018a, p. 1

1. 화주기업³⁴⁾

제조업의 진출은 2018년 초 아르좁에 진출한 현대웰딩루스(현대종합금속)의 용접봉 생산 공장을 시작으로 서서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웰딩루스는 국내와 베트남 공장 등에서 생산된 용접재료를 러시아 연해주 즈베즈다 조선소에 판매해 왔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연해주 발쇼이카멘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극동 러시아 제조업 육성 관련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와 수주, 기술 이전 등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러시아 측 프로젝트 발주처는 러시아 최대 석유공기업인 RosNeft이다. RoseNeft는 즈베즈다 조선소를 통해 장차 석유시추선부터 쇄빙선까지 제작하여 이를 러시아 내 석유 채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즈베즈다 조선소는 현대웰딩루스에 2019년 이후 러시아산 부품 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 생산을 요구했으며, 이에 현대웰딩루스는 극동 러시아의 생산거점 확보를 추진하였다. 현재 현대웰딩루스는 세계 주요 19개 국가에 생산공장과 판매법인지사를 통해 80개 국에 용접재료와 용접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2. 물류기업

우리나라 물류기업 중 극동 러시아 시장 진출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으로는 현대상선, 장금상선, 범한판토스 등이 있다.

34) 철강금속신문(2018. 3. 13.)

1) 범한판토스³⁵⁾

범한판토스는 지난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범한판토스 극동 물류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범한판토스 극동 물류센터의 부지규모는 27,710㎡로 연면적 5,040㎡ 규모의 랙(Rack) 시설을 갖춘 창고시설과 중장비와 벌크화물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여유 부지로 구성되어 있다. 범한판토스 극동 물류센터는 모스크바에 위치한 제조 기업의 생산 제품과 동북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중국 등)의 수입 화물을 집하하여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으로 배송하는 Central Distribution Center(CDC)로서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동시에 극동 러시아 지역의 W&D(Warehouse & Distribution)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5년 러시아에 진출한 이후 범한판토스는 활발한 사업 진행을 통해 국내 물류기업 중 러시아 시장에서 단연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범한판토스는 CIS 지역의 주요 거점 30여 개소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의 유기적인 연계 운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2) 현대상선 및 장금상선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 중에 현대상선과 장금상선은 한국, 중국, 러시아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그 전에도 FESCO(러시아), CMA·CGM 등과 함께 한-중-러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말 이후 현대상선은 장금상선과 공동으로 부산·광양·울산 등

35) 판토스 홈페이지(검색일: 2018. 8. 10.)

국내 주요 항만을 기항지로 설정해 신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위해 1,000~1,700 TEU급 컨테이너선박 5척을 투입했다. 신규 서비스는 남중국(South China)발과 중중국(Central China)발 항로로 구분되어 주 2항차로 운영된다. 남중국발 서비스는 KHR (Korea·Haiphong·Russia Express)로 부산-울산-광양-홍콩-하이퐁-서커우-샤먼-부산-보스토치니-부산을 기항한다. 중중국발 서비스는 CRE (China Russia Express)로 상하이-닝보-부산-보스토치니-블라디보스토크-부산-상하이를 기항한다.

3. 지역개발기업

현재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농장개발사업 분야 실제 영농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아그로상생, 서울사료, 롯데상사, 남양 등 기업이 있다. 극동 러시아 중에서도 미하일롭스크 지역에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서울사료(러시아 내 업체명 에꼬호즈), 아로(포항축협), (주)해피콩, (주)바리의 꿈 등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콩, 옥수수, 밀 등을 생산하고 있다. 미하일롭스크 지역은 러시아 정부가 농축산 및 식품 산업 분야에 특화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선도개발구이다.

1)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2009년부터 극동 러시아에 진출해 영농사업을 이어 오다가 2017년 10월 자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미하일로프 카농장과 현대하물농장 지분 100%, 현대프리모어 농장 지분 49.99%를 320억 원에 롯데상사에 매각했다. 2018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텔, 농장법인 인수건의 기업결합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

로 롯데가 인수하였다. 총 인수규모는 호텔과 농장 모두 합쳐 865억 원 수준이다.³⁶⁾

롯데상사의 인수배경에는 사드로 인한 중국사업에서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트, 백화점, 제과 등 사업을 동남아, 극동 러시아, 몽골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신시장 개척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롯데의 경우, 사드 부지 제공 이후 중국 현지 시장에서의 급격한 매출 하락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 손실 등 유무형 피해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래 식량자원 확보 및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던 롯데상사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연해주 3천만 평 규모의 토지농장권 및 영농법인을 통해 식품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수산산업 등 유관사업 기회도 모색함으로써 미래식량 자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계룡건설

계룡건설은 2004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와 주택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합작법인(KR KHABA)을 설립했다. 계룡건설은 현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면허취득 승인절차를 밟았으며 같은 해 하바롭스크시가 추천한 사업부지에 대한 최종 선정작업을 실시했다. 2005년에는 모델하우스를 선보이고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2006년 4월, 계룡건설은 자체 브랜드인 ‘계룡하바롭스크리슈빌’인 주상복합아파트(공급평형 24, 30, 40, 50, 60) 214가구를 착공하고 분양했다.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실제 완공은 그보다 늦은 2010년 2월에 마무리되었다.

36) 노컷경제(2017. 12. 1.)

3) 롯데그룹³⁷⁾

롯데그룹은 2017년 12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과 연해주 지역의 현대중공업 농장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현대호텔(블라디보스토크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지분 전체를 인수했다. 그리고 롯데상사는 연해주 지역의 3000만 평 규모(서울시 면적 6분의 1 수준)의 토지경작권 및 영농법인을 인수했다.

호텔롯데의 경우 이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 사업 확장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롯데상사는 최근 미래의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비교적 인접해 있는 연해주 지역에 영농사업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평가된다.

제2절 해외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1. 일본

1) 진출 현황

2005년 러시아 연방법이 개정된 이후 일본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기업 일반적인 진출 현황을 보면, 2016년 11월

37) 조선비즈(2017. 12. 1.)

기준 314개가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3-2〉 참조). 그중 제조업이 135사(43.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매업 88사(28.0%), 서비스업 35사(11.11%)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 지역은 모스크바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극동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일본기업의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다. 일본의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투자 분야는 도시 환경 부문과 항만, 철도 등 인프라 부문, 자동차 및 관련 부품소재 부문, 농·수산물식품산업, 전력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산업, 의료 제약산업, 플랜트 등이다.

일본의 극동 러시아 투자 지역은 연해주와 사할린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극동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대한 투자는 러·일 사할린 가스전 공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였으며, 연해주 지역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2013년 기준 일본의 연해주 지역에 대한 투자(11억 7,773만 달러)가 사할린 지역에 대한 투자(11억 6,943만 달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극동 러시아 지역 중 일본기업이 주로 진출한 지역은 하바롭스크, 사할린주, 캄차카 등이다(〈표 3-3〉 참조). 극동 러시아 지역의 경우, 그린하우스 농업과 의료 분야에 일본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총 60개사에 이르고 있다.³⁸⁾ 이는 극동 러시아 지역 개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연해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일본의 극동러시아 지역 주요 진출 분야는 수산, 목재,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부문 등이었으나 수산과 목재 관련 부문에서는 대

38)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협력 현황」(검색일: 2018. 6. 14.)

부분 철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푸틴 대통령의 극동 러시아 개발 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극동 러시아에 대한 일본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표 3-2〉 업종별 일본기업 진출 현황

업종별	회사수	비율(%)
건설업	5	1.6
제조업	135	43.0
도매업	88	28.0
소매업	6	1.9
운송·통신업	21	6.7
서비스업	35	11.1
부동산업	2	0.6
그외	22	7.0
합계	314	100.0

자료: 帝国データバンク, “ロシア進出企業実態調査”, 2016, p. 14

〈표 3-3〉 지역별 일본기업 진출 현황

진출지역별	회사수	비율(%)
모스크바주	161	64.7
연해지역	34	13.7
레닌그라드주	21	8.4
사할린주	15	6.0
사마라주	7	2.8
이르쿠츠크주	7	2.8
하바롭스크지역	6	2.4
니즈니노브고로드주	6	2.4
캄차카주	6	2.4
트베리주	5	2.0
그 외	25	10.0
기업 합계	293	117.6

주: 복수지역에 진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비율합계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帝国データバンク, “ロシア進出企業実態調査”, 2016, p. 13

2) 진출 기업

(1) 미쓰이물산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은 1967년에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이른 시기부터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다. 러시아에 진출한 후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비롯해 에너지, 자동차, 금속, 곡물, IT 등 다양한 업종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누적 투자액은 30억 달러 이상으로 일본기업 중 최다액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12월 러일정상회담에서 발표한 '8개항목 협력계획(8項目の協力プラン)'에서도 가스프롬, 루스기도로, 노바테쿠 등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의료 및 농업·곡물·축산 분야 등에서도 현지기업과의 협력에 합의했다.

미쓰이물산은 대외 무역이 개방된 직후인 1876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세계 66개국에 154개 사무실을 전개하고 있다. 미쓰이물산 모스크바는 1967년에 주재원 사무소로 개설된 후 2004년에는 러시아 및 CIS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현지 법인화되었다.

(2) 시마즈제작소(株式会社 島津製作所)

시마즈제작소는 분석계측장치, 의료용 진단기기, 광학디바이스, 레이저 기기, 항공산업기계 및 산업제조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조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875년 설립된 이후 일본을 기점으로 북미, 유럽, 중국,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생산거점 및 판매거점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에서는 지역 판매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급성장하는 러시아의 분석·의료 기기 영업 체제를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자회사인 Kratos 사는 세계 최첨단 질량 분석기 표면 분석장치 등을 개발·제조하고 의료·바이오·재료 과학 분야에 기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 진출을 더욱 활발히 전개 중에 있는 기업이다.

재료 시험기계, 구조물 시험기계, 질량분석 시스템, 표면분석·관측 시스템, 수질계측 시스템, 바이오 관련 분석 시스템 등의 분야에 기술적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 지역에 다각적 제품 및 산업인프라 분야 진출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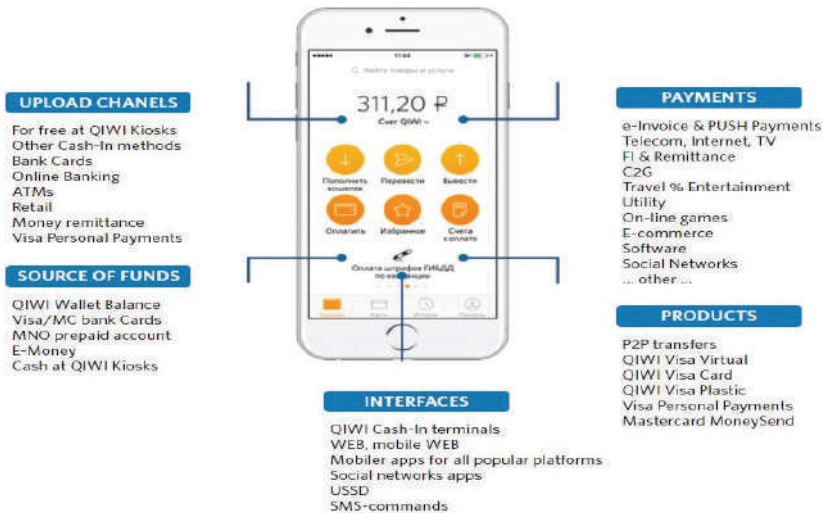
(3) QIWI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당시에 미쓰이물산 경영진은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 전망 하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010년에 러시아 최대 전자결제 사업자인 키위(QIWI)회사에 투자한 사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QIWI는 2007년에 설립한 IT 벤처기업으로, 점포에 설치된 소형 ATM과 같은 결제단말기를 통해 이용자가 공공요금이나 휴대전화 요금 등의 지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과거 러시아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IT 및 모바일결제 개발 및 보급이 빠른 편은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우수한 IT 인재를 육성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휴대전화 이용자의 약 80%가 결제단말기를 통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결제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월간 약 8,000만 명이 QIWI Wallet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결제단말기 시장에서 약 4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QIWI Wallet은 사용자에게 보편적이고도 안전한 보안 및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QIWI 계정은 전 세계의 비자를 수령하는 소매점에서 구매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선불카드 및 실제선불카드에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이 장점이다. 이에 소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QIWI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공공요금 및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서비스 및 송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이나 편의점ATM을 대체하는 결제 수단으로 널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의 전자상거래 전자 화폐시장의 결제수단 서비스시장은 향후 보다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QIWI는 러시아 이외 15개국에서도 같은 결제서비스 사업을 전개 중이며, 은행ATM 및 직불·신용카드 등의 결제 인프라가 보급되지 않은 신흥시장(특히 CIS국가, 동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의 소비자에게 자사의 편리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1〉 QIWI 주요 사업 분야 및 기능



자료: <https://corp.qiwi.com/en/company/wallet.action>(검색일: 2018. 6. 15.)

미쓰이물산은 QIWI와 같은 러시아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시장의 소비자결제수단 서비스제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농장개발

일본은 극동 러시아 농장개발 분야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극동의 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농산업을 지원하는 협정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은 본 협정 체결에 따라 북방영토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EU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농산물과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국내 농업 강화를 통한 내수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러·일 정부와 민간의 농업 관계자 간 공통 플랫폼을 설치한다. 토양 및 농업용수 등의 조사, 기술지원, 농업기계의 도입에 의한 효율화를 실시하며 특히 식물공장이나 곡물터미널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통해 하바롭스크를 비롯한 극동 러시아에 일본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5) 인프라

일본의 대 극동 러시아 지역개발 진출과 관련해 살펴보면 주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할린 프로젝트를 통해 사할린 주의 유전, 천연가스 개발 분야에 일본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하다.

또한 일본정부는 최근(2018년 5월) 아베총리의 러시아 방문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도시 인프라 현대화 계획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조절하는 '스마트 신호등' 설치, 선진 하수도 수리기술, 폐기물의 재이용 기술을 포함하여, 관광시설 및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주변 인프라 현대화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자본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개발로 향후 일본의 러시아 진출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중국³⁹⁾

1) 진출 현황

중국은 극동 러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프리모리에 I-II 국제운송회랑 프로젝트’의 추진 등을 기반으로 중국 동북 3성과의 물류 연계강화, 농업 및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공급기지 다각화 및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 육상 수송을 통한 에너지 공급 루트 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원 협력을 구상·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풍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석유·가스 부문의 전 분야에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지역개발 분야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현황을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자유항에 총 27개의 외국 투자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그중 중국기업이 기업수와 투자규모 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과 한국 투자자들이 뒤를 이었다⁴⁰⁾. 2016년 9월, 리지얼동방철강유한공사(利吉尔东方钢铁有限公司)는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입주하였으며, 이는 중국 최초로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입주한 기업으로 러시아 관련 부문의 우대정책을 받고 있다⁴¹⁾.

39)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현황은 중앙정부 차원 및 지방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

40)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驻俄罗斯代表处(2017.10.3.),

http://www.ccpit.org/Contents/Channel_3974/2017/1013/894186/content_894186.htm(검색일: 2018. 5. 24.)

한편, 2017년 12월 기준, 선도개발구역에 총 212개 기업이 입주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외국기업은 22개사에 달한다(〈그림 3-2〉참조). 212개 사의 투자예정액은 약 2조 1,810억 루블(약 386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외기업의 투자예정액은 1,714억 루블이다. 국가별로 중국 9개사, 한국 3개사, 일본 3개사로 중국 기업비중이 높다.

〈그림 3-2〉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 현황(2017. 2. 기준)

		Region	Zone	Corporate	Field of Investment
China	1	Primorsky Krai	Nadezhdinskaya	Veles-Snek LLC	Fish Processing
	2	Primorsky Krai	Nadezhdinskaya	Aptamil Dalniy Vostok Rus LLC	Baby Goods
	3	Khabarovsk Krai	Khabarovsk	STK LLC	Road construction equipment
	4	Amur oblast	Priamurskaya	Amur Energy Company LLC	Construction of Oil Refinery
	5	Amur oblast	Priamurskaya	S Technology LLC	Construction of A cement plant
	6	Jewish autonomy	Amuro-Khinganskaya	Logistika LLC	Construction of Hotel
	7	Jewish autonomy	Amuro-Khinganskaya	Amurprom LLC	Bean Processing
	8	Jewish autonomy	Amuro-Khinganskaya	Birobidzhansky Metal Structure LLC	Steel Structure, Building Materials
	9	Saha Republic	Kangalassi	Sakha Clay Pits LLC	Construction of Building Materials plant
Korea	1	Primorsky Krai	Bolshoi Kamen	Hotel Pride LLC	Hotel Construction
	2	Primorsky Krai	Nadezhdinskaya	O-yang LLC	Fish processing
	3	Khabarovsk Krai	-	Gorod 415 LLC	Fish Processing
Japan	1	Khabarovsk Krai	Khabarovsk	JGC Evergreen LLC	Greenhouse complex
	2	Sakhalin	Gornly Vozduh	Khonoka Sakhalin LLC	Resourt complex
	3	Saha Republic	Kangalassi	Sayuri LLC	Greenhouse complex

자료: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2018, pp. 7-8

2) 진출 기업

(1) 중국 국가 차원의 해외진출

2016년 말까지 중국의 對러시아 총 투자액은 129.8억 달러에 이르

41) 黑龙江省商务厅(2017. 5. 26.), <http://www.mofcom.gov.cn/article/difang/201705/20170502576655.shtml>(검색일: 2018. 5. 27.)

렸으며, 투자 분야는 주로 에너지·자원, 농림개발, 건축 및 건축자재 생산, 무역, 방직업, 가전, 통신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⁴²⁾.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贸合作区, 이하 ‘협력구’)는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해외에서 구매 및 임대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한 후 협력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운영방침이나 주요 산업을 명확히 하고 협력구의 인프라를 건설하여 기타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지 지역개발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한다.⁴³⁾

2016년 기준 중국기업은 총 185.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개의 일대일로 국가에 56개 협력구를 건설하였으며, 1,082개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량 506.9억 달러라는 성과를 거두었다(〈표 3-4〉 참조). 또한 그 지역들에 10.7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17.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⁴⁴⁾. 하지만 2년도 안 된 현재(2018년 5월) 시점에서 중국 외교부는 ‘일대일로’ 연선지역의 협력구는 총 75개에 달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한 기업들의 해외진출(走出去) 플랫폼으로의 성과와 중국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⁴⁵⁾

현재 중국 상무부 심사를 통과하여 국가급 협력구로 지정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무역협력구는 러시아 우수리스크경제무역협력구(俄罗斯乌苏里斯克经贸合作区), 중러(연해주)농업산업협력구(中俄(滨海边疆区)农业产业合作区), 러시아 룡웨임업경제무역협력구(俄罗斯龙跃林业经贸合作区) 등 3개이다⁴⁶⁾.

42)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中国驻俄罗斯大使馆经济商务参赞处·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2017), p. 37.

4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검색일: 2018. 5. 27.)

44)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7), p. 24.

45) 外交部(검색일: 2018. 5. 27.)

4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7), p. 25.

러시아 우수리크스경제무역협력구는 캅지국제투자유한공사(康吉国际投资有限公司), 중러(연해주)농업산업협력구는 헤이룽장둥닝화신경제무역유한공사(黑龙江东宁华信经济贸易有限责任公司), 러시아룽웨이임업경제무역협력구는 헤이룽장무단장룽웨이경제무역유한공사(黑龙江牡丹江龙跃经贸有限公司)가 시행사로써 투자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표 3-4〉 주요 중국 국가급 협력구(기업) 현황

구분	진출업체	내용	주요 시행사 및 대표 입주 기업
제조	러시아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협력 구 (俄罗斯乌苏 里斯克经贸合 作区) ⁴⁷⁾	• 위치: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 면적: 228만㎡ • 투자액: 20억 위안(인프라: 7억) • 특성: 2006년 상무부 허가 • 산업: 경공업, 가전, 목재, 칼라강판 등 • 계획: 총 60개 중국 기업 유치 계획	• 캅지 국제투자 유한공사 (康吉国际投资有限公司) • 헤이룽장지신공업무역그룹(黑龙江吉信工贸集团), 저장강나이 그룹(浙江康奈集团), 원저우 화룬공사(温州华润公司)가 공동 설립 • 신얼타이 신발(鑫尔泰鞋业), 지린목업(吉信木业), 지리얼 가구(利吉尔家具) 등 27개(2014)⁴⁸⁾ • 동방강철유한공사(东方钢铁有限公司)⁴⁹⁾
농업	중러(연해주)농 업산업협력구 (中俄(滨海边疆 区)农业产业合 作区)	• 위치: 연해주 미하일로프카, 허롤(Khorol), 포크라니치니 등 3개 구역 • 면적: 1,000km² • 특성: 2015.4. 국가급 해외 농업협력구로 지정 • 산업: 재배업, 양식업, 가공업, 물류창고	• 둥닝화신공업무역(그룹)유한공사(中国黑龙江省东宁华信工贸(集团)有限公司) • 타이위안농목과학기술개발유한공사(泰源农牧科技开发有限公司)⁵⁰⁾
임업	러시아 룽웨이임업경제 무역협력구 (俄罗斯龙跃 林业经贸合作 区)	• 위치: 아무르(주요), 파스코브, • 이만, 추코트카 등 4개 구역 • 면적: 9만km² • 투자액: 13억 달러 • 산업: 임업 생산가공, 물류 서비스, 컨벤션센터 • 계획: 40개 기업 유치 계획	• 무단장시룽웨이경제무역유한공사(牡丹江市龙跃经贸有限公司) • 헤이룽장나이리그룹(黑龙江耐力集团, 40%), 이춘신춘그룹(伊春新春集团, 30%) 및 쉬이펀허산샤공사(绥芬河三峡公司, 30%)가 협력하여 설립⁵¹⁾

자료: 一带一路战略平台, <http://www.drcnet.com.cn/www/ydyj/channel3.aspx?uid=8012#zhidao>
(검색일: 2018. 6. 15.)

이 밖에 중국 지업투자유한공사(中国纸业投资有限公司)가 극동지역의 풍부한 임업자원을 활용하여 하바롭스크에 10억여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지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본 협의는 2017년에 체결된 큰 사업 중의 하나이다⁵²⁾.

(2) 중국 지방급 협력구(기업) 해외진출

중앙정부에서 허가한 국가급 협력구 외에도 중국의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성·시급의 해외협력구를 건설하여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해 오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헤이룽장성은 중·러 협력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며 러시아 내 협력구 건설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헤이허(黑河), 푸위안(抚远), 쑤이펀허(绥芬河) 등 헤이룽장의 접경도시들은 극동 러시아에 해외산업원구를 설립하는 기업들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녕(东宁)시는 4개의 해외산업원구를 건설하여 중국에서 해외산업원구를 가장 많이 설립한 지방도시가 되었다⁵³⁾.

헤이룽장성은 대러시아 투자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투자액은 중국 전체 對러시아 투자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현재까지(2018년 2월) 헤이룽장성 기업들은 러시아에 총 18개의 협력구를 건설하였으며 총 146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표 3-5〉 참조). 헤이룽장성은 협력구 건설을 통해 러시아에 총 3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현지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47) 环球网(검색일: 2018. 5. 7.)

48) 商务部(검색일: 2018. 5. 27.)

49) 黑龙江日报(검색일: 2018. 5. 7.)

50) 俄罗斯卫星通讯社(2017. 8. 10.)(검색일: 2018. 5. 27.)

51) 中国境外经贸合作区(검색일: 2018. 5. 24.)

52) 俄罗斯卫星通讯社(2017. 3. 13.)(검색일: 2018. 8. 3.)

53) 中俄资讯网(2017.10. 25.)(검색일: 2018. 5. 27.)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⁴⁾.

지린성도 협력구 건설을 통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 지린성의 대외투자액은 34.9억 달러로 전년대비 19.7% 증가하였다. 러시아에 건설한 러시아타이위안농목업산업원구(俄罗斯泰源农牧业产业园区), 메이라이중신목업 러시아우호공업원구(美来中信木业俄罗斯友好工业合作区), 러시아 이르쿠츠크목재가공원구(俄罗斯伊尔库茨克木材加工园区) 등 협력구에는 이미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했다. 2017년에는 중러농목업산업원구(中俄农牧业产业园区), 중러목재가공원구(中俄木材加工园区), 중몽농목업 및 심층가공원구 등 12개 해외 협력구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린성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을 시도하였다⁵⁵⁾. 그 결과로 2018년에는 지린쌍후공사 러시아목재가공원구(吉林双湖公司俄罗斯木材加工园区)가 정식으로 지린성의 허가를 받아 지린성 최초의 해외협력구로 지정되었다⁵⁶⁾.

〈표 3-5〉 주요 중국 성·시급 협력구(기업) 진출 현황

지역	진출업체	내용	주요 시행사 및 주요 입주기업
헤이룽장	웨이진공업원구 (跃进工业园区)	• 위치: 우수리스크시 • 면적: 26만㎡ • 산업: 의류, 신발, 방직품	• 쉰이펀허웨이진공사(绥芬河市跃进公司)
	중러화위경제무역 협력구(中俄华宇 经济贸易合作区)	• 위치: 포크로브카 • 면적: 120만㎡ • 투자액: 11억 위안	• 동닝화신그룹(东宁华信集团) • 바이자목업(百家木业)
	중러나이라목재원 구(中俄-耐力木材 园区)	• 위치: 유대안시(亚德安市) • 면적: 77만㎡ • 투자액: 6.47억 위안	• 나이라목업유한공사(耐力木业有限公司) • 다쯔란바닥재공사(大自然地板公司) • 상하이선다목업공사(上海森大木)

54) 海外网(검색일: 2018. 5. 27.)

55) 人民网(2017.2.20.), http://www.sohu.com/a/126726350_114731(검색일: 2018. 5. 7.)

56) 吉林市商务局(2018. 2. 7.),

http://sw.jlcity.gov.cn/swdt/201802/t20180207_398485.html(검색일: 2018. 5. 27.)

지역	진출업체	내용	주요 시행사 및 주요 입주기업
			业公司) • 유타이저우유수제품공사(犹太州优塑制品公司) • 뤼베이성다공사(萝北盛大公司)
	둥닝화양공사해외농업녹색원구(东宁华洋公司境外农业绿色园区)	• 위치: 연해주의 옥타브리스 • 키군과 哈洛里 • 면적: 7,500헥타르 • 산업: 농축업, 유제품 생산 및 가공	• 둥닝화양무역유한공사(东宁华洋贸易有限公司)
	중러-파스코브 목재가공원구(中俄-巴什科沃木材加工园区)	• 위치: 유대인자치주 파스코보(Pashkovo) • 투자액: 6.4억 위안 • 산업: 목재가공	•
	미하공업원구(米哈工业园区)	• 위치: 연해주 미하일롭스키 • 면적: 14만㎡	•
	거청신베이팡목재가공원구(格城新北方木材加工园区)	• 위치: 연해주 포크라치니 • 면적: 100만 ㎡ • 투자액: 4060만 달러	• 신베이팡경제무역유한공사(新北方经贸有限公司) ⁵⁷⁾
	니즈네레닌스코예(下列宁斯科耶木材加工园区)	• 위치: 유대인자치주 니즈네 레닌스코예 • 산업: 목재가공	•
	중러-이만목재가공경제무역공업원구(中俄——伊曼木材加工经贸工业园区)	• 위치: 연해주 이만(현 달레네 친스크) • 면적: 2.06km ² • 투자액: 2억 달러	•
지 린	지린쌍후공사 러시아목재가공원구(吉林双湖公司俄罗斯木材加工园区)	• 특성: 지린성에서 허가한 최초의 해외 협력구 ⁵⁸⁾	• 쌍후상업무역공사(双湖商贸公司)

자료: <http://www.drcnet.com.cn/www/ydyl/channel3.aspx?uid=8012#zhidao>(검색일: 2018. 6. 15.); <http://www.chinaru.info/zhongejmyw/zhongemaoyi/35315.shtml>(검색일: 2017. 5. 27.)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시사점⁵⁹⁾

최근 중국은 극동 러시아 지역의 자원 수입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로 양국 정부 간 대화채널 확대 및 강화, 물류 인프라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극동 러시아 경제협력은 에너지 자원 개발, 농업부문 협력, 인프라 개발, 제조업 투자 등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부합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다양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협력 분야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중·러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무원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주요사업들과 거시경제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극동 러시아 지역 개발의 컨트롤 타워로 부각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동북 3성 등 지방정부 간의 효과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산하에 동북진흥을 담당하는 동북진흥사를 운영하고 있어 극동 러시아 개발과 협력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은 극동 러시아 지역 경제협력에 있어 중국 정부의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여 중국의 對러시아 정책목표와 협력 사안을 명확히 하며, 러시아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은 극동 러시아 지역 협력에서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협력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과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극동 러시아와의 경

57) 中国中小企业黑龙江网 齐齐哈尔分网(검색일: 2018. 5. 28.)

58) 吉林市商务局(검색일: 2018. 5. 27.)

59) KOTRA(2017a), p. 25.

제 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채널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실용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의 극동 러시아 진출 분야는 주로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기업들 역시 사할린을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의 극동 러시아 투자는 1990년대 사할린 가스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09년부터 LNG를 생산하기 시작한 사할린 II의 생산량의 80%를 일본에서 수입했다(2013년 기준). 또한 2011년 러시아 가즈프롬과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에 대한 준비에 합의하였다. 또한, 일본은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으나 투자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10여 개의 일본 농업기업이 친환경 농법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홋카이도식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극동 러시아에 1,000ha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무르 주의 농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계획에 따라 2013년 초 홋카이도 은행과 아무르 주 농업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농업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은 경우, 마쓰다, 도요타 등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솔러스社와 합작투자로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극동 러시아 협력 정책도 중국과 유사하게 에너지 자원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투자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극동 러시아 협력부문에서 일본의 이익보다는 철저하게 러시아에 필요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즉, 그동안의 자원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선도개발 구역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양국 간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양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거 극동 러시아 진출에 관심이 높았으나 러시아의 제도적 불안정성 등으로 투자를 회피했던 일본기업들이 2016년 러·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3절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사례 분석

1. 화주기업(현대중공업)

화주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사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고압차단기(Gas Insulated Switchgear, GIS) 제조 공장을 건설한 현대중공업의 현지자회사인 현대일렉트로시스템(Hyundai Electrosystems)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동 회사는 설립 후 5년간 연속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여 2017년 7월 공장 법인을 러시아 업체에 매각을 결정했다. 본 절에서는 현대일렉트로시스템의 극동 러시아 진출 배경 및 진출과정을 서술하고, 진출 리스크와 실패요인을 검토하려 한다.

1) 진출과정

2010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 4위 수준의 전력 생산·소비 국가로 전력 생산량이 풍부하나, 그에 대응한 소비량도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력시설이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건설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광활한 영토로 인해 불안정

적인 전력공급의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전력시설 및 전력망의 인프라의 현대화,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2010년 러시아 정부는 전력산업 종합계획을 책정했다. 2030년까지 173.4KW의 신규 발전용량을 확보하고, 노후화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력 시설 67KW를 폐쇄하는 계획⁶⁰⁾이다.

대외적인 상황에서는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한-러 간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석유, 천연가스, 전기에너지 및 관련 장비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⁶¹⁾했다.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도 고압차단기는 기존의 조선이나 변압기 산업 등의 주력 사업과 비교하여 경험이 풍부하지 않는 산업이기는 하나, 전력시스템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이므로 러시아 시장에서의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국내의 울산, 중국, 미국, 불가리아 등에서 전력기기 관련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어 기술력 및 글로벌 관리 체계는 일정부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러시아 고압차단기 시장에서 520억 원의 판매수익을 거두는 등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전력시설 및 전력망 현대화 사업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2012년부터 연간 10%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약 7,500억 원 규모⁶²⁾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1년 6월 현대중공업은 러시아연방전력청(FSK)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5년간) 연방전력청 고압차단기 발주물량의 50%(약 200대)를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판매 물량을 확보⁶³⁾할 수 있게 되었다.

60) 이성규(2013), p. 6.

61) 중앙일보(2011. 7. 18.)

62) 중앙일보(2011. 7. 18.)

이러한 정치적·기술적·경제적 요인 등을 검토하여 현대중공업은 2011년 9월 고압차단기 공장 착공하게 된다. 설립방식은 현대중공업의 100% 출자로 현지자회사인 현대일렉트로시스템(Hyundai Electrosystems)을 설립했고, 공장 부지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결정했다. 초기 투자비용은 400억 원이고, 공장면적은 총 4만㎡(1만 2천 평)이다. 그리고 고압차단기는 110kV~500kV급을 연간 250대⁶⁴⁾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공장 부지의 경우 당초 공장은 당초 모스크바 인근에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 내의 건설을 검토했으나, 러시아 송전공사가 극동지역을 제한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2년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담에서 극동지역 개발이 주요 이슈로 부상되어 그 시의 성이 반영된 평가⁶⁵⁾된다.

〈그림 3-3〉 현대일렉트로시스템 조감도



자료: 블록체인AI뉴스, "현대중공업,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진출"(2011. 7. 23.),
<http://blockchainai.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4&nMcate=M1001&nScate=11&nIdx=3678&cpage=31&nType=1>(검색일: 2018. 10. 16.)

63) 조선비즈(2016. 11. 9.)

64) 파이낸스 뉴스(2016. 3. 18.)(검색일: 2018. 10. 16.)

65) 민지영 외(2013), pp. 111 ~ 112.

이후 2013년 1월 기존 계획보다 규모를 확장하여 공장을 준공했다. 공장 규모는 총 10만㎡(3만 평) 부지에 110kV~500kV급 고압차단기를 연간 350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총 투자액은 5,300억이다. 그리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압차단기를 연간 500대 생산 가능한 규모로 확대할 계획도 발표⁶⁶⁾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연해주 정부 및 연방송전공사와 블라디보스토크 기술전문학교 내 전력학과 개설했다. 그리고 학교의 건물 및 실습 기자재를 현대화하고 전문기술강좌를 운영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현대일렉트로시스템에 우선 채용하는 방침도 마련⁶⁷⁾했다.

〈그림 3-4〉 현대일렉트로시스템 공장 내부 사진



자료: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1.25 현대중공업 연해주 고압차단기 공장 준공식 개최」,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4/view.do?seq=9722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2(검색일: 2018. 10. 16.)

66) 전력경제(2013. 2. 4.)

67) 머니투데이(2011. 9. 9.)

그러나 준공 이후 당초 연간 200대 정도의 물량을 약속한 현지 국영기업인 연방송전망공사(FSC)와의 계약이 틀어지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2014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공장 운영 재개를 위해 연내 60대의 고압차단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추가로 40대를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 및 경제제재 등의 악재로 인해 정상 가동⁶⁸⁾이 어려워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고압차단기 판매에 난항을 겪으면서 2013년 800억 원이 넘었던 현대일렉트로시스템의 자산총액은 2015~2016년 100억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후 5년간 연속 손실이 발생해 누적 손순실이 220억 원에 이르렀다. 결국 2017년 7월 현대중공업은 현대일렉트로시스템을 러시아 업체에 매각하기로 결정⁶⁹⁾하게 된다.

〈표 3-6〉 현대중공업의 진출과정

2010년	2011년	2013년
• 러시아 정부의 전력시설 인프라 현대화 계획 발표 • G20정상회담에서 한-러 간 전기에너지 및 관련 장비 상호 협력 합의 • 현대중공업 시장에서 520억 원의 판매수익 달성	• 공장 부지 모스크바 인근 산업단지 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변경 결정 • 현대중공업 연방전력청과 5년간 연방전력청 고압차단기 발주물량의 50% (약200대) 공급 협약 체결 • 현지자회사인 현대일렉트로시스템 설립 • 고압차단기 공장 착공 (9월)	• 공장 준공(1월) • 2015년까지고압차단기 연간 500대 생산가능 규모 확대계획 발표 • 현지자회사인 현대일렉트로시스템 설립 • 블라디보스토크 기술전문학교 내 전력학과 개설 및 인재양성 • 연방송전망공사의 장기 공급계약 불이행으로 가동 중단
2014년	2015년	2017년
• 러시아 정부는 공장 재개를 위해 연내 60대 고압차단기구매 약속, 추가로 40대 구매협상 진행	• 루블화 가치 폭락, 경제제재 등으로 정상 가동 지장	• 현대일렉트로시스템을 러시아 업체에 매각 결정 (7월)

68) 파이낸스 뉴스(2016. 3. 18.)와 조선비즈(2016. 11. 9.)를 참조하여 재작성

69) 울산제일일보(2017.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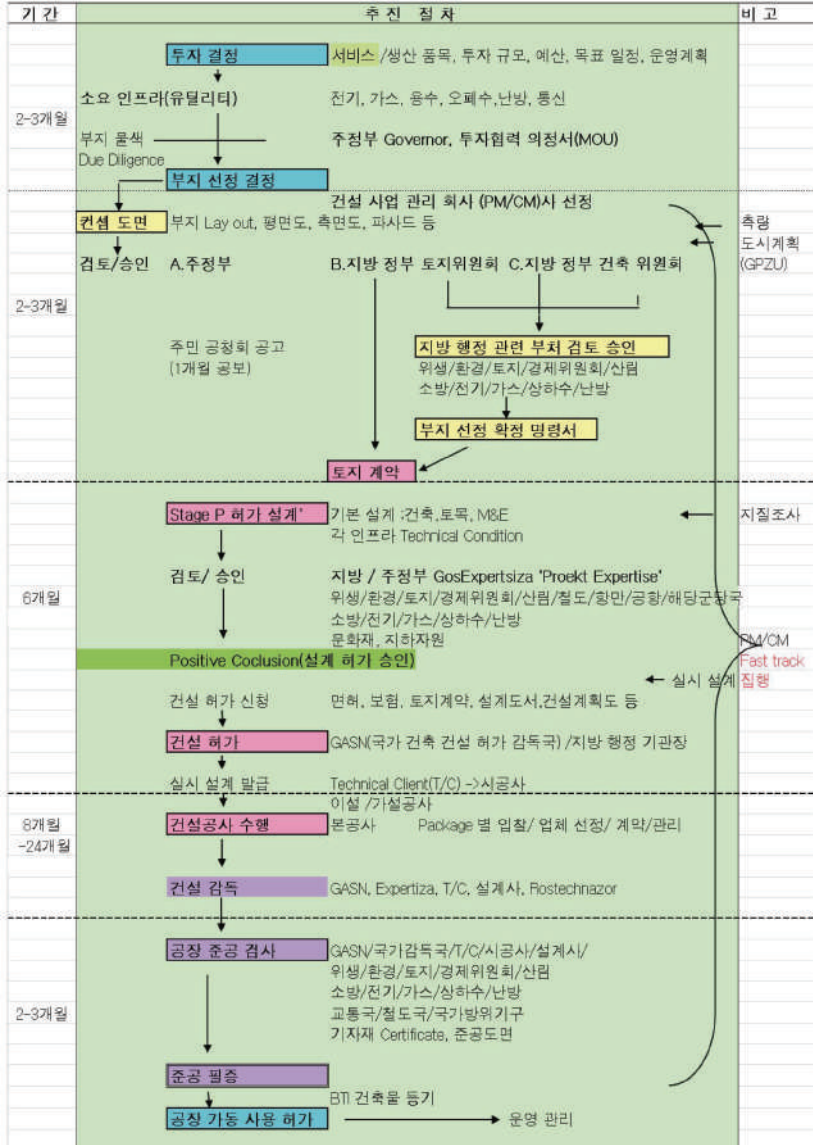
2) 진출 리스크

화주 기업이 극동 러시아 진출 시에는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 절차, 진출 방식에 따른 위험, 물류서비스 품질 확보 어려움, 인입 인프라 연결 등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공장 등 산업시설의 건설 절차의 경우 부지선정, 토지계약, 기본 설계서 작성 및 검토, 설계 허가 승인, 건설 허가, 건설공사 수행, 건설 감독, 공장 준공 검사, 준공 필증 취득, BTI 건축물 등기, 공장 가동 사용 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제반과정은 18~24개월 정도 소요되며, 현지 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국내와 비교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현지 전문가에 의하면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담당자에 따라 적용 기준, 처리 시간 등이 상이하여 초기 계획한 건설 공정률을 달성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지의 관련 행정 절차 및 인·허가 상황들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에서 준공, 공장 가동 및 사업 개시까지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전조사를 비롯한 진행절차가 복잡하여 진출기업 차원에서 진행할 시 법률, 지침 등과의 상충으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지 선정 후 토지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 토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지방 정부 건축 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 검토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련 사항들은 위생, 환경, 토지, 산림, 소방, 전기, 가스, 상하수, 난방 등이 있다. 또한, 해당 구역 지역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정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업 착수 시부터 행정적·법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현지 대형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림 3-5〉 러시아 산업시설(공장)의 건설 절차



* 전체 18~24개월 기준 : 약 20,000 ~ 50,000 sqm 공장 기준

자료: KOTRA,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p. 359.

다음으로 진출 방식에 따른 리스크를 살펴보면 진출방식은 크게 수출 방식과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수출의 경우, 업무의 안정성, 분쟁위험 회피, 자금 부담력 완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지 시장에 대한 통제력 약화, 현지 시장 노하우 축적의 어려움, 수출 관련 물류 비용 발생 등의 단점도 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원자재, 부품 등의 현지 조달로 인한 비용 절감, 생산 및 마케팅에 대한 통제력 강화, 생산 기술 및 마케팅 노하우 축적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지 공장, 사업장 설립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환율 및 유가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영향, 현지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한 영향 증가 등의 단점도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현대중공업은 현지 생산을 통한 글로벌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극동 러시아 시장에서의 시장 경쟁력 확보, 생산 기술의 노하우 축적 등의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위험성인 환율 변동(루블화 가치 폭락), 경제제재 등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변화로 인한 생산 활동 및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100% 단독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정치적 리스크를 기업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합작 투자의 경우 현지 기업과의 공동 지분을 소유·운영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할 수 있고, 현지 판매 네트워크 및 전문 인력 등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합작투자로 성공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합작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보증이 마련되어야 한다.

극동 러시아에 진출한 A기업(국내 사업자)은 현지 사업자와 합작 투자로 우드펠릿 사업⁷⁰⁾을 착수했다. 현지 기업의 도움으로 신속한

70) 러시아에서 우드펠릿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구상했으며, 수출처인 한국 시장에 판매처와의 판매계약이 완료되어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행정 처리가 가능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에 사업 개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현지 기업과의 마찰 및 행정적 사유⁷¹⁾ 등으로 인해 A기업은 사업 철수를 하게 되었다. 철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가 충분한 청산 기간을 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극동 러시아 시장에 기업이 진출의 구상 단계에서 충분한 현지조사와 사업 착수, 사업 준비 과정, 사업 개시, 운영 단계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진출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극동 러시아 기업 진출의 또 다른 리스크는 물류 연계 부분이다. 현지 전문가들과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신속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류관점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지정된 곳으로 화물이 운송되어야 하나 현지 물류기업은 운송 지연, 화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진출 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이미지 손실, 경쟁력 하락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 시장에 진출 시에는 사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회사를 확보하거나, 국내 물류회사와의 동반 진출이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시설(공장) 부지 선정 시의 인입 인프라 연결 리스크이다. 국내의 경우 산업단지, 산업시설(공장) 건설 시 인입 인프라는 비교적 용이하게 연결 가능하여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는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는 적은 편으로 인입 인프라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 이에 산업시설(공장) 부지 결정 과정에서 도로, 전력, 수도, 통신 등의 인입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거나 연

71) 기업 비밀 보장 등으로 인해 구체적 내용 제시는 제외

결 가능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 수도 등이 사유지를 거쳐 연결될 경우 사유지 소유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표 3-7〉 진출 리스크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공정 지연 위험성	진출방식에 따른 리스크	파트너의 신뢰성 확보 어려움	물류서비스 품질 확보 곤란	인입 인프라 연결 미비
행정 절차의 복잡화, 인·허가 승인 지연 등 당초 사업공정 달성 어려움	극동 러시아 직접투자 시 경제적·정치적 리스크 높음,	합작 투자 시 현지기업의 신뢰성 확보 어려움	현지 물류기업의 운송 지연, 화물 누락 등의 물류서비스 질 저하	도로, 철도, 수도, 통신 등의 인입 인프라 연결 미비,

3) 성공 및 실패요인

현대중공업의 고압차단기 진출 사례의 실패요인으로서는 자원 의존형 산업 한계, 현지직접투자 및 단독 출자로 리스크 헤징 부족, 환율 변동에 의한 가격 경쟁력 약화, 현지 정부의 장기공급계약 위반에 대한 이행 보증 부재 등으로 평가된다.

고압차단기는 전력 시설 내에 사용되는 설비로 전력설비 생산에 대한 의존형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의 전력설비 확충 계획 변경에 따라 기업 전체의 생산 및 판매량이 결정된다. 실질적으로 국제제재와 루블화 가치 폭락 등으로 인해 전력시설 및 전력망 현대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영기업인 연방송전망공사

(FSC)의 발주 계획이 축소되어 현대일렉트로시스템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의 진출방식과 관련된 사항이다. 당시 러시아 시장에 고압차단기를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 중 상위 기업은 수출을 통한 간접 판매를 실시했고, 러시아 현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최초였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단독 출자를 통한 현지직접투자를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했다. 현지 기업과 공동 출자를 실시했을 경우 기업 손실에 대한 일정 부분을 현지 기업이 감당하게 되어 자사의 손실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고압차단기 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적·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장 준공 후 러시아 경제 악화로 인해 루블화가 폭락했다. 이로 인해 해외원자재 및 부품 구입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제품 생산 단가가 높아졌다. 결국 유럽산(상위기업) 고압차단기 완제품의 수입가격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적 자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장 설립 이전인 2011년 러시아연방전력청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5년간) 연방전력청 고압차단기 발주물량의 50% 수준을 공급하기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에서는 장기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보증이 없는 상황이었다.

〈표 3-8〉 진출 주요 실패 요인

의존형 산업 한계	현지직접투자 및 단독출자로 리스크 헤징 부족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현지 정부의 계약 이행 보증 부재
고압차단기는 의존형 산업으로 현지 정부의 전력설비 계획 변경에 따른 기업 전반에 영향	고압차단기 부문 외국기업 중 최초 진출로 초기 리스크 높음, 단독 출자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소극적 대응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생산단가 급등, 유럽산 수입품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현지 정부의 장기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보증 부재

2. 물류기업(범한판토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물류기업 중에서 범한판토스의 극동 러시아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진출과정

범한판토스는 지난 2013~2014년까지 2년 연속으로 세계 12대 글로벌 물류기업⁷²⁾으로 선정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이다. 지난 2013년 DHL, UPS, CEVA 등과 더불어 국내 기업으로써 유일하게 세계 12대 글로벌 물류기업에 포함되었다. 범한판토스는 국제화물 포워딩, 보관, 유통, 철도운송, 프로젝트 화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물류사업을 진행 중이며, 아시아 지역에 특화한 물류서비스 제공이 최대 강점이다. 즉, 중국 및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범

72)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 Report) (<https://www.gartner.com/en/research/methodologies/magic-quadrants-research>) (검색일: 2018. 8. 1.)

한판토스 전체 매출의 약 40%(2013년 기준)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범한판토스는 지난 2005년 러시아에 진출한 이래 다양한 사업수행 능력을 보이며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물류기업 중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한판토스는 러시아 진출 후 물류시설 선점을 기반으로 물류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범한판토스는 러시아 물류 경쟁력의 핵심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2007년 TSR 최종 종착지인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연간 15,000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약 3만 평 규모의 수출물류단지를 조성했다. 2005년 말부터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한 범한판토스는 러시아측 파트너인 DVTG 그룹과 함께 850만 달러(약 80억 원)를 투자했다. 한국에서 선적된 수출용 컨테이너들은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하역된 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이 단지에서 통관 및 배송을 기다리게 된다. 그 전까지는 한·러 양국 간에는 수출입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의 불편한 통관절차 때문에 인근 핀란드를 거쳐 러시아에 반입되었었다. 당시 범한판토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러시아 물류 인프라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2012년 범한판토스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자가 물류센터인 극동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이후 극동 러시아 개발 등으로 물동량이 상승하였음에도 극동 러시아 지역의 화주들에게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물류센터는 모스크바 인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수입된 화물을 임시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극동물류센터를 통해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동시에 극동 러시아 및 시베리아 전역의 수요에 따라 적시에 배송이 가능한 Central Distribution

Center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극동물류센터는 지난 2007년 모스크바 인근에 세운 물류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A급 창고로써 여유 부지는 벌크와 기타 야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표 3-9〉 범한판토스의 러시아 진출 현황

2005	2007	2012
러시아 진출 (모스크바 지사 설립)	모스크바 인근 물류단지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물류단지 건설

2) 진출 리스크

물류기업이 극동 러시아 진출에 앞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자체 물동량 확보 방안, 교통·전력·수도 등 인프라 취약, 러시아 통관시스템 및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 러시아 법·제도, 투자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다. 또한, 현지 사업파트너와의 신뢰 구축 및 거주지 등록 문제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10〉 주요 진출 리스크

현지 물동량 확보 불확실성	인입 인프라 미확인 리스크	통관시스템 및 규칙 불완전성	극동 러시아 법·제도 및 투자 정보 제한
극동 러시아의 제한된 물동량 확보에는 현지 기업 대비 경쟁력 열세	물류창고 등 구축 시 관련 인입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 발생 및 지연	통관시스템 간 정보 공유 지연, 주정부별 상이한 통관 규칙, 세관별 요구 서류의 상이함	빈번한 법·제도 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장치 부족, 현지 인력 및 근로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물류기업이 극동 러시아에 진출하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극동 러시아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생산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현지에서 창출되는 물동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물류기업이 현지 물류기업을 상대로 경쟁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범한판토스의 경우 초기 주요 파트너사인 전자전기 기업의 물동량을 기반으로 극동 러시아 진출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에코비스 역시 삼성, LG, 롯데 등 국내 기업의 물동량을 기반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 현지 진출에 성공한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⁷³⁾

다음으로 현지에 물류창고 등 시설 설립 시 진입도로, 전력망, 수도시설 등 인입 인프라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법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명시한 조항은 없으나, 러시아 연방 헌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도 러시아 연방 시민과 동등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⁷⁴⁾ 그러나 선정된 부지에 인입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⁷⁵⁾ 따라서 부지 선정에 있어 전기, 수도, 상하수도, 통신,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사항은 각 주정부 투자청 및 주 정부기관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3) 이성우 외(2014), p. 48.

74) 단, 러시아 연방 토지법 제15조 제3항, 러시아 연방 농지법 제3조에 따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경 지역이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다.

75) 한국의 한 중소기업사는 2002년 모스크바 남부 인접 도시에 공장 부지를 선정했는데 추후 공장 설립 추진 과정에서 공장으로의 진입도로 건설에 총 투자비의 30%를 자체 투자하여야 하는 약조건이었다. 따라서 그 부지를 포기하게 되어 부지 재검토가 추진되었다. KOTRA(2018c), p. 359. 참조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통관 시스템 및 통관 규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러시아 통관제도는 복잡한 양식, 많은 서류 제출 요구, 잦은 검사 등이며, OECD 국가 대비 통관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11〉 러시아 통관 서류 및 소요시간

구분	수출 시 소요시간(hr)		수출 시 비용(US\$)		수입 시 소요시간(hr)		수입 시 비용(US\$)	
	서류	국경통과	서류	국경통과	서류	국경통과	서류	국경통과
러시아	25.4	72	92	665	42.5	38.6	152.5	587.5
OECD 국가	2.4	12.7	35.4	149.9	3.5	8.7	25.6	111.6

자료: KOTRA,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p. 388

최근 러시아는 WTO 가입과 EAEU 통합 관세법(2018. 1. 1. 발효) 발효를 통한 유라시아 연합국(EAEU) 간의 통관 간소화 및 통관시스템 전산화 등 통관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표 3-12〉 러시아 통관 여건 변화

구분	개요	장점	단점
2007년 이전	• 위조 및 인맥 등을 이용한 불법 통관 시기	• 인맥이 넓은 업체를 이용 시 물류 운송시간 및 빠른 통관이 가능	• 불법적인 방법에 따른 위험성이 매우 높음
2013년 이후	• EAEU 출범으로 관세동맹 체결국 간 수출입 통관이 없어지는 중 • 통관시스템 전산화 진행 중	• 연합국 내 제품 생산 시 EAEU 전체로의 시장 확대 및 진출 용이 • 편법활동 감소	• 연합국 외부로부터 수입된 제품의 시장 점유 및 경쟁력 저하 가능 • 편법을 통한 물류 통관 시간 단축 가능성이 낮아짐

자료: KOTRA,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p. 388

국내 기업이 러시아 통관 중 난항을 많이 겪는 부분은 인증서 제도로, 러시아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러시아의 HS Code 기준에 의거한 러시아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품에 따라 1일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신제품, 의약품, 식품류, 화장품 등은 1~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표 3-13〉 러시아 통관 특징

구분	특징
기본사항	• 아프리카, 남미(브라질) 등과 함께 통관 오지로 분류 • 복잡한 양식과 많은 통관서류가 특징(인력의존도 높음) • 중앙세관에서 EDI 신고를 권고사항으로 채택
세관구도	• 중앙세관(FTS)을 중심으로 직할세관 및 지역세관으로 구분 • 주요 지역은 FTS가 직할로 관리, 지방은 FTS의 파견 사무소가 지역세관을 관리
최저 단가 제도	• 제품의 최저 단가를 Kg당 가격으로 내부 확정(KTS) • 제품 가격이 이하가 될 경우, 강제 조정(최저단가와 동일 또는 높게 산정)
통관 프로세스	• 러시아의 통관 프로세스는 4단계로 구성(등록→Value 컨트롤→관·부가세 납부 부서→반출 부서) • 평균 통관일수: 2~3일(지속 통관업체의 경우 낮은 통관일수로 보장)
강제 인증서 제도	• HS Code에 따라 요구하는 인증서 종류(통관 시 반드시 필요) 다양 • 통관을 의뢰받은 통관대행사가 인증서 여부 확인 가능
보세 통관	• 보세 운송차량은 일반 차량의 약 2~3배 고비용 • 최종 도착지 통관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자료: KOTRA,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p. 389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통관 시스템 투명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적인 통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편법적인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관시스템의 전산화 및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간 연동 미흡으로 전산 정보의 공유가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며, 주정부 간 통관 규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스크바에서 통관한

물품에 대한 통관 정보를 극동 러시아 세관에서는 확인하는 데 1~2일 정도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화물의 중량에 대한 기준 등도 통관 규칙도 세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⁶⁾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 및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외국기업이 변경된 법령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된 법·제도에 대한 정보 습득이 제한되어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의지 등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러시아의 조직 문화 및 관련 법, 근로자의 자세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 주재원의 거주 등록의 어려움⁷⁷⁾, 높은 환율 변동폭, 유가, 경제제재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

3) 성공 및 실패요인

범한판토스가 극동 러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자체 물동량 확보, 네트워크 구축, IT 시스템 활용, 인재양성 및 현지 전문가 활용 등이 있다.

우선 범한판토스는 국내 화주의 물동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다.

76) 통관 서류에 화물의 중량 기재 시, 모스크바에서는 팔레트의 중량을 제외한 실화물 중량을 기준으로 하나,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 팔레트 중량을 포함한 총 중량을 화물 중량으로 규정.

77) 주재원은 입국 후 7일 이내(단, 고급인력의 경우 90일)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나, 집주인의 보증서 등으로 등록이 어려움. 과거에는 사무실을 거주지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 실제 거주지 등록이 필수로 변경됨.

또한, 모스크바 지역에 물류 터미널을 설립·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및 인·허가 과정 또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범한판토스는 모스크바에 진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육성,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주요 이슈를 즉시 해결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향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즉, 러시아 주요 물류거점에 관련 조직을 구성·배치하여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더불어, 범한판토스의 최적화된 IT시스템을 러시아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화주기업들의 물류 가시성을 확보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범한판토스가 러시아 진출에 역점을 두었던 또 다른 부문은 바로 인재양성이다. 통관, 철송, 육상수송, 해상운송, 항공, 터미널 등 다양한 분야의 물류 전문가를 채용하는 동시에 내부에서도 분야별 전문가로 육성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러시아에서 최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물류 부문의 노하우와 경험을 고객에게 공유하고 동시에 고객사의 물류부문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표 3-14〉 진출 주요 성공 요인

자체 물동량 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 이슈 해결	최적화된 IT시스템	인재 양성	현지 전문가 활용
한국 화주의 물동량 확보를 기반으로 과감한 시설 투자	주요 물류거점에 관련 조직 구성, 현지 이슈의 해당 거점 해결 및 고객 만족도 향상	화주기업들의 물류 가시성 확보 지원	통관, 철송, 육상, 해운, 항공, 터미널, 등 부문별 물류 전문가 채용 및 내부 인재를 각 분야 리더로 육성	러시아 지역 내 물류서비스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응체계 마련

3. 지역개발기업(현대농장과 에코호즈)⁷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개발기업 중에서 현대농장과 서울사료(에코호즈)의 기업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두 기업의 연해주 농장사업을 중심으로 진출 목적과 배경, 과정 및 현재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들 기업이 극동 러시아 진출에 있어서 직면한 리스크를 기업별로 검토한 뒤 기업진출의 성공 또는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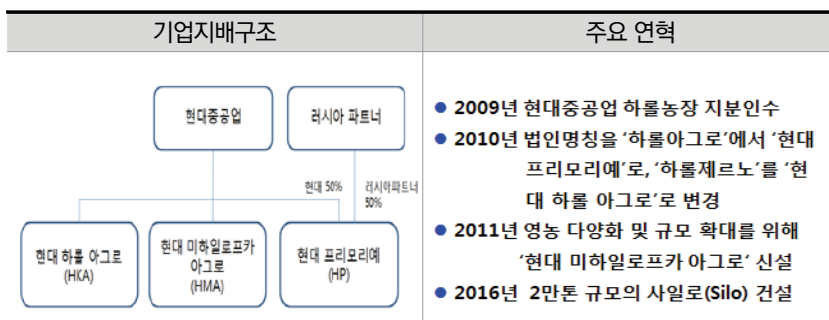
1) 진출과정

현대그룹은 이미 러시아와 수교 전에 진출하여 연해주에 호텔건설, 석유사업권 획득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현대농장이 진출할 당시 식량가격이 폭등해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진출 준비단계에서 기업 내부에 농업관련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력을 영입하여 준비하였으나 러시아 농장사업 진출에 관한 우려와 반대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러시아 농장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 아래 현대하롤아그로, 현대미하일로프카아그로, 현대프리모리에 등 세 개의 자회사를 경영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현대중공업이 현지 하롤농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대미하일로프카아그로 신설, 2012년 현대하롤아그로 영농사업 시작으로 인해 영농의 다양화와 규모 확대가 이루어지기

78) 이 부분은 2018년 8월 28일 개최되었던 KMI·KRIHS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김용진 전 지사장(전 현대중공업), 권지형 차장(이지바이오) 내용과 해당부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작성.

시작하였다. 현대하물아그로는 연해주 하물군에, 현대미하일로프카아그로는 연해주 미하일로프카군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모두 영농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프리모리에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해 있으며 농지 임대차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림 3-6〉 현대중공업의 기업지배구조 및 주요 연혁



자료: 박지원, 국토연구원 자료회의 자료, 2018. 참조

러시아 연해주 현대농장은 대규모 영농을 통한 식량생산을 목표로 농지 2만 1천ha(6천만 평)을 확보하여 3,500만 달러 투자비가 투입되었다.

한편, 서울사료(에코호즈)는 극동 러시아 우수리스크 중심으로 현재 4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 현지 지주회사인 에코호즈를 설립했고, 이후 그리고리에브카 농장, 바까피르카 농장, 한까플러스 농장 등을 설립했다. 2012년에는 라콥스코 농장을 인수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축산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⁷⁹⁾ 모기업은 농축산전문 기업인 이지바이오이며, 이지바이오의 계열사인 서울사료가

79) 이와 같이 연해주에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러시아 법인관련 규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투자금액과 자원을 보호하면서 현지 농장법인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음. 박지원(2018) 참조

투자하여 만든 것이 에코호즈이다. 국제곡물가격이 급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연해주에 진출해서 직접 영농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해주를 선택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한국과의 인접성이었다. 현재 현지에서 실제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면적은 12,000ha이며, 영농현황은 5,000ha 규모이다. 토지형태는 대부분 임대로 되어 있고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3000ha 조금 넘는 규모이고 49년 임대계약을 바탕으로 곡물경작과 축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확량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사료는 2013년부터 한국으로 곡물을 도입하고 있는데 비단 서울사료에서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다른 기업이나 유럽 쪽에서 생산한 것을 사서 한국으로 도입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료용으로 들여왔지만 산업용(전분가공)으로도 도입하고 있다. 생산량은 2013년에 옥수수 3,000천 톤 정도에서부터 시작해 올해 상반기 16,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3-7〉 서울사료(에코호즈) 기업지배구조 및 주요 연혁



자료: 권지형, KMI · KRIHS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2018. 8. 참조

〈표 3-15〉 현대농장과 서울사료(에코호즈)의 진출배경 및 과정 요약

구분	현대농장	서울사료(에코호즈)
배경/ 준비	• 타 분야 종사하는 모기업이 해외농업 진출 • 기존 타 분야 극동 러시아 진출 경험 보유 • 전문가 영입을 통한 진출준비 • 현지농장 M&A를 통한 진출	• 농축산전문기업이 곡물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 전문가 영입을 통한 진출준비
시기	• 현대하물농장 2009년 설립	• 에코호즈 2008년 설립
농지	• 21,000ha	• 12,000ha(실제 영농면적 5,000ha)
투자	• 3,500만 달러	• n.a
위치		

자료: KMI·KRIHS 공동세미나(2018. 8.) 중 김용진 발표자료, 권지형 발표자료 등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위치도는 구글지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진출 리스크

지역개발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미분업화된 산업구조, 규모를 갖춘 도시 및 시장 미비, 물류교통 인프라의 낙후, 법제도적 진입장벽 등이다. 또한 현지의 짧은 농작물 재배가능기간으로 인한 재배작물의 제한도 진출의 리스크 요인으로 구분된다.

〈표 3-16〉 주요 진출 리스크

미분업화된 산업구조	일정규모의 도시 및 시장 미비	물류교통 인프라 낙후	법제도적 진입장벽
업종별 수직계열화가 아니면 수익창출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소규모 도시로 인한 소비시장 미형성	취약한 교통인프라로 인한 운송 시간 및 비용 증가	생산된 곡물의 공급 및 판매유통의 규제, 시설건축에 관한 규정 등 까다로운 러시아 건축법

우선 지역개발기업의 전반적인 진출리스크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산업구조가 분업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 수직계열화가 아니면 수익창출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장사업의 경우 농장사업뿐만 아니라 농기계 수입, 정비기사 고용 및 수리, 부품 보관창고 등 관련된 제반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다시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농장의 경우, 초기에 농기계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러시아로 들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관세와 까다로운 통관규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⁸⁰⁾

이외에도 도시규모가 적어 소비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 된다. 극동 러시아의 낮은 인구분포는 규모를 갖춘 도시의 형성을 막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소비시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된 잉여곡물은 수출로 이어져야 하나,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역시 취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진출 리스크는 법·제도적 차이이다. 농지 소유권 임차권에

80) 관세부과기준이 가격기준 또는 종량기준 등으로 자주 변경됨. 김용진 발표자료(2018) 참조

대한 법적인 보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생산된 곡물의 공급과 판매유통에 대한 규제들, 관련 시설건축에 관한 규정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곡물저장시설인 사일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러시아 건축법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¹⁾ 사일로의 경우 폭발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위험성을 검사하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합법적으로 사일로를 건설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사전 설계 등 관련 사항을 승인 받은 경우 준공 검사 없이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법체계와 복잡한 규정 등이 러시아 진출에 있어서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사료의 경우도 현지 농장경영을 통해 생산된 곡물의 현지 판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규모가 작고 체계가 없는 현지 곡물시장 여건을 들 수 있다. 또한 농작물 재배가능 기간이 짧고 재배작물에 제한을 받는 영농기후 조건 등도 지역개발기업 중에서도 영농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의 리스크 요인으로 파악된다.

3) 성공 및 실패요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한국기업의 대 극동 러시아 투자 중에서 성공 사례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성공요인은 초기 진입 전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초기 진출 담당자에 따르면 투자 전 세계 대규모 농장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대

81) 사일로는 러시아건축법상 폭발위험성이 있어 안정성 검사가 필요하며 민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김용진 발표자료(2018)

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연해주와 비교 검토를 실시했다.⁸²⁾ 연해주 지역으로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도 투자방법에 대한 부분과 FDD (Financial Due Diligence)와 TDD(Tax Due Diligence)를 시행하여 법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준비작업이 이루어졌다.⁸³⁾ 이외에 현대중공업의 경우 상당한 투자 자금 투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초기투자비가 80만 달러에서 계속 증액되어 3,500만 달러까지 크게 늘어난 상황에 대처한 것은 충분한 초기 투자자금 여력을 갖춘 대기업이었기에 가능했다.

다음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기업을 M&A하여 진출함으로써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M&A 과정이 1년가량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상대기업 지분보유를 통해 간접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현지 사업 습득 및 직원 훈련을 실시하였다. 기존 현지 운영기업 M&A 방식은 초기 진출비용을 줄이고 사업의 성공확률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공요인은 러시아의 까다로운 법체계에 관한 현지 전문가의 활용이다. 현지 전문가를 현장 책임자 또는 대외 매니저 역할을 부여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 했다는 점이다.⁸⁴⁾

한편, 서울사료의 경우는 모기업이 기본적으로 농축산전문기업으로서 연구개발, 종자개발, 생산 및 축산, 가공 및 유통 등 모두 계열화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 성공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두의 주요 생산지역인 극동지역에 농장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경영목적

82) 김용진 발표자료(2018)

83) 박지원(2018)

84) 현대중공업의 매각은 그룹 전체 차원의 경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기업차원에서 비주류 사업 정리에 대한 압박이 커짐에 따라 단행된 조치로 해당기업의 극동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부진으로는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함.

과 부합되는 적절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현지 제한된 곡물소비처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도입을 시도했다는 점을 이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러시아 연해주에는 적은 인구로 곡물수요가 크지 않으며 주요 곡물소비처가 대두는 콩기름 공장인 엠제까, 옥수수는 미하일로프까 브로일러, 그 린스타 등 일부 축산기업에 국한된다. 이 기업은 현지 수요에서 벗어나 국내로 도입해서 수요처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현지 수확압박 및 보존여건에 따른 빠른 판매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방안이었으나 결국 국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게 된 계기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즉 리스크 요인을 성공의 요인으로 전환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3-17〉 진출 주요 성공 요인

충분한 사전준비	상당한 투자자금 투입	M&A	법률관련 현지 전문가의 활용
투자 전 세계 대규모 농장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연해주와 비교 검토를 실시	초기투자비 80만 달러에서 최종적으로 3,500만 달러 투자	기존 운영기업과의 M&A를 통해 진출함으로써 초기 시행착오 최소화	현지 전문가를 현장 책임자로 부여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주기업, 물류기업, 지역개발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과정에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과 기업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리스크 요인, 그

리고 기업 운영 외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표 3-18〉 참고).

〈표 3-18〉 극동 러시아 진출 리스크

구분	화주기업	물류기업	지역개발 기업	리스크 저감 방안
공통 리스크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공정 지연	• 통관시스템 및 규칙 불완전성 • 법·제도 및 투자정보 제한	• 법·제도적 진입장벽	•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현지조사 • 법/행정 현지 전문가 활용 및 인재양성
보완 리스크	• 물류서비스 품질 확보 곤란 • 인입 인프라 연결 미비	• 현지 물동량 확보 불확실성 • 인입 인프라 미확인 리스크	• 물류교통 인프라 낙후	• 화주, 물류, 지역개발 기업 동반진출
외부 리스크	• 진출방식에 따른 리스크 • 파트너 신뢰성 확보 어려움	•	• 일정규모의 도시 및 시장 미비	• 한-러 비즈니스 협력 강화 • 단계적 진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공통 리스크는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극동 러시아 진출 리스크로서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 법·제도의 빈번한 개정 및 해석의 모호성, 통관 시스템 및 통관 규칙 문제 등이며,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은 공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진입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은 관련 분야의 현지 전문가 또는 전문 대행업체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현지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보완 리스크의 경우 화주기업, 물류기업, 지역개발 기업의 동반 진출을 통해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화주기업, 물류기업, 지역개발 기업이 상호 필요에 따라 화주+물

류, 화주+지역개발, 물류+지역개발 또는 화주+물류+지역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동반 진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외부 리스크의 경우, 기업이 사전에 예상하기 힘들거나 기업 차원에서 해소가 불가능한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이후 지분확보, 운영권 획득 등 부분적 진출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지 기업화를 추구하는 단계적 진출을 통해 이러한 외부 리스크 요인을 완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한-러 정부 또는 주정부 간 비즈니스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구축도 필요하다.

제 4 장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방안

제1절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가능 분야 및
애로사항

1. 극동 러시아의 입지적 특징

극동 러시아 지역은 수산물, 지하자원, 에너지 자원 등의 개발, 생산 및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자원수출형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극동 러시아 지역의 인구는 약 620만 명으로 러시아 총 인구의 4.2%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러시아 극동연방관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극동 러시아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과거부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동시에 소비재 시장 또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극동 러시아 지역은 입지적으로 자원지향형(원료지향형) 산업은 발달할 수 있으나, 시장지향형

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입지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 정부 또한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해 이러한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2. 진출 가능 분야

러시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극동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기대되는 한국과 극동 러시아 기업들의 대표 협력 사업으로 목재가공업, 조선업, 수산가공업, 양식업, 건설산업 등을 예상하고 있다.⁸⁵⁾

1) 목재가공업(목재펠릿)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목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 등 부산물을 분쇄, 건조, 압축하여 제조하는 우드펠릿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약 95% 이상의 우드펠릿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85%가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지역의 목재보다는 러시아 목재가 품질이 더 뛰어나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극동 러시아 지역은 아태 지역 목재 보존량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극동 러시아 지역의 열악한 물류환경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지 18% 정도만을 활용하고 있다.

85) 한-러 극동포럼(2018. 5. 16.),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現 롯데호텔)

향후 극동지역의 항만 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북극항로 활용이 활발해질 경우 우드펠릿에 대한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선업(LNG 쇄빙선 및 어선)

조선업 중에서는 쇄빙기능을 장착한 LNG 쇄빙선이 주목받고 있다. 제2차 야말반도 LNG 개발 사업 등 러시아가 북극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자원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1차 야말 프로젝트에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신뢰하여 15척의 'LNG 쇄빙선'을 발주했던 전례가 있어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노후화된 어선(선령 30년 이상)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에서 어선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어선 건조 분야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양식업

현재 러시아 수산업 분야에 있어 양식업, 냉동저장 창고 건설 등이 유망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1) 수산업

러시아 수산물 가공제품은 2016년 기준 약 4백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가공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이 중 64%가 급속 냉동 수산물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1차 가공보다는 2-3차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수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수산시장 및 가공시설 등을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2) 양식업

러시아 수산물은 주요 도시로의 운송가능 수단이 부족하여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업이 발달해있다. 현재 극동지역은 2016년 기준 약 52개의 양식업체가 108개의 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주로 가리비, 해삼, 다시다 등을 양식하고 있다.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양식업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은 주위에 바다를 끼고 있어 양식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식량이 적은 편이었다.⁸⁶⁾ 더불어 수족관, 종묘장 등 양식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며, 재임대와 관련된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해당 지역의 양식업 개발과 현대화를 위해 전 자경매방식 도입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 기업의 양식업 진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투자를 한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86) 2016년 기준 극동지역의 양식량은 약 7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1/35 수준임. KOTRA 해외시장뉴스, 「극동 러시아 진출 유망산업 중심 이동」(검색일: 2018. 10. 1.) 참조

4) 에너지 인프라 사업

한국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가스관 연결 사업(‘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사업 등)을 확대해 가고 있고, 러시아와 일본 역시 에너지 상·하류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극동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사업, 연관 분야인 석유화학 분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과거 협의가 추진되다가 중단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변화 요인으로 이 현안에 대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⁷⁾ 남·북·러 가스관이 연결되면 러시아 사할린 등에서 러시아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에게는 도입비용 절감을, 북한에게는 통과 수익을,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수출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올해 들어 빠르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을 재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극동 러시아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및 협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그림 4-1) 참조).

87) 한겨레(2018. 5. 2.)

〈그림 4-1〉 남-북-러 가스관 예상 노선



자료: 한겨레, “남·북·러 가스관 연결 ‘3각 협력’ 수면 위로”(2018. 5. 2.),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42914.html>(검색일: 2018. 5. 27.)

5) IT 산업

러시아의 IT 산업 역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IT의 발달로 인해 현재 러시아의 온라인 유통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 차원의 IT 시장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탓인데 2010년 기준 163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규모가 2016년 319억 달러까지 성장했다.⁸⁸⁾

물론 러시아 지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IT가 원활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러시아 정부가 ‘정보화 사회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러시아 전체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9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⁸⁹⁾

88)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 IT 시장 성장 가속화」(검색일: 2018. 11. 1.)

89) KOTRA(2018c), p. 554.

이런 IT 시장의 발달로 러시아의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7%가 넘는 성장률을 보인 바 있으며, 2017년 러시아의 온라인 시장은 전체 소비시장의 3%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해외직구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시장의 경우 러시아 내에서도 특히 모스크바주, 상트페테르부르트, 모스크바시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 3개 지역이 전체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⁹⁰⁾

6) 콜드체인 냉장설비 시장

러시아 콜드체인 냉장설비 시장 성장의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냉동 및 냉장설비 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 중 하나이다. 신선식품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냉동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입품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러시아의 냉동 및 냉장 보관 및 유통설비는 매우 낙후된 상황으로써 이는 소비자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는 이미 콜드체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을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과 시설을 모두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콜드체인 시설의 비중이 높은 곳은 최대 수산도시가 위치한 극동지역이다. 그리고 식료품 유통을 위한 냉동 창고는 70% 이상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유럽 인접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낙후된 콜드체인 시설로 인해 식품 손상률이 높음에 따라 러시아 어업부에서는 현재 가동 냉장설비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으

90) KOTRA(2018c), p. 555.

며 이에 향후 러시아의 냉장설비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냉장설비 중에서도 냉동컨테이너 자체생산 수입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¹⁾

3. 진출 애로사항

최근 극동러시아 지역은 기업 환경 개선 정책과 러시아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 추진 등으로 국내 기업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어장벽, 여전히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제재 등 진출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지난 2013년 러시아 시장 진출의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패, 뇌물(20.5%), 조세(15.3%), 행정, 관료주의(11.9%), 불편한 금융제도(10.0%), 제도, 법규 변동(4.5%), 인프라 제약, 노동인력(5.4%)이 주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⁹²⁾

러시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법률 및 행정제도에 따르는 어려움, 환율 변동의 불안성, 언어 및 노무관리 등이 있다(〈그림 4-2〉 참조).

1) 법률 및 행정제도의 어려움

러시아의 법률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러시아 진출 시 요구되

91)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 콜드체인(Cold Chain) 시장동향」(검색일: 2018. 11. 1.)

92) 박종호,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기업 진출전략과 과제」, 한러비즈니스협의회, 2015.9.22.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2ahUKEwip-q_4977fAhVUIIgKHdgqCxxgQFjAAegQIARAC&url=http%3A%2F%2Fwww.krbcouncil.org%2Fmodule%2Fboard%2Fdownload.php%3Fboardid%3Dboard14%26b_idx%3D55%26idx%3D593&usg=AOvVaw06qGVFg0kxOdpkc6Spn0ef, 검색일: 2018.9.2.)

는 서류가 많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 처리도 지연되는 등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선 현지 법률 사무소 또는 이미 진출한 러시아 법률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법규와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여 관련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극동지역의 농지 등 토지소유에 관한 법 규정, 건설 및 건축 분야 법 규정 등 전반적으로 극동 러시아 투자관련 법,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물류 인프라와 관련해 통관 부문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실제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 은행 업무 등 상이한 경영환경은 현지 진출에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환율 변동의 불안성

러시아는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화폐의 가치 변동이 잦은 편이다. 화폐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며, 현재는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있어 경제적 제재에 따른 화폐 가치 예단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3) 언어장벽

러시아는 영어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서 영어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러시아어가 유창한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특유의 문화 등

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노무관리

노무관리는 외국인 투자자가 러시아에 진출하면서 겪는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이다. 국가마다 근로조건, 근무시간, 급여, 휴가 등에 대한 규제가 모두 상이하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리자가 노무와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노무는 문화, 언어 및 정서차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러시아 노동법은 고용주의 입장과 거리가 있음과 동시에 고용인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 관리자 입장에서는 노무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며, 이러한 사유로 현지인 근로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³⁾

5) 노동력 부족

현재 러시아는 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러시아 인구는 1991년 대비 50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련의 붕괴 이후 심각한 인구 유출로 인해 러시아의 인력 부족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이 시작된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현 시점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억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노동

93) KOTRA(2018b), p. 40.

력 부족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에 대한 공급 역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정부는 러시아 경제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력 부족, 퇴직연령, 투자유치, 다양화, 생산선 향상 등 5개 분야를 언급한 바 있다.⁹⁴⁾ 하지만 인구감소 추세는 노동력 감소와 더불어 숙련 인력에 대한 공급까지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6) 인프라 부족

러시아의 물류 인프라 부족은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물류산업에 있어 인프라의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지만 인프라 자체가 워낙 낙후되어 있는 탓에 물류산업의 발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영토가 넓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개선 및 보수작업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운송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및 교통망 발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⁹⁵⁾

7) 정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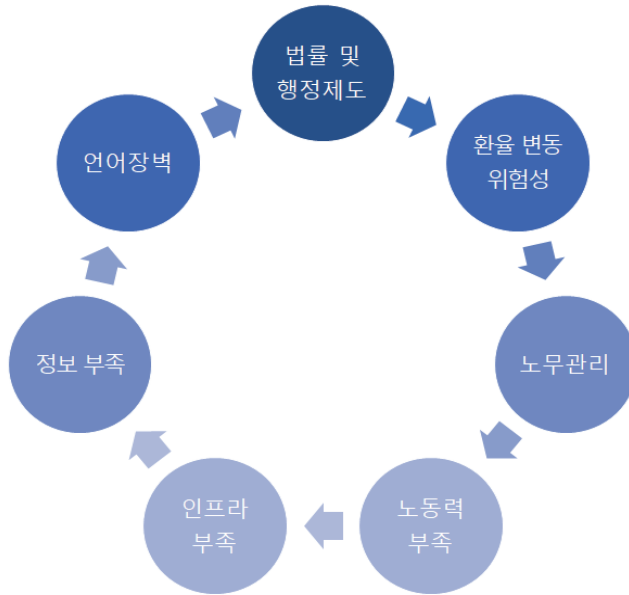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관심을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기업들의 경우 러시아의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 제도에 관심이 많지만 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94) 뉴시스(2018. 3. 19.);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4.)

95)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 물류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 진출 동향」(검색일: 2018. 11. 4.)

만약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극동지역의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⁹⁶⁾

〈그림 4-2〉 극동 러시아 진출 주요 애로사항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성공가능 모델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은 단독진출, 연관기업과의 동반진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M&A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극동러시아 지역의 진출 리스크 완화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동반진출, JV, M&A 등을 검토했다.

96) 제6차 한러 극동포럼, 2016.6.7.

1. 동반진출 모델

극동 러시아는 동아시아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주요국, 즉 일본, 중국 등은 극동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시에 ‘프리모리예 I·II 국제운송회랑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동북 3성과의 물류연계 강화, 농업·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6년 러·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의 8대 협력 사업을 제시,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이를 위해 동반진출 모델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극동 러시아는 산업 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도 크지 않아 물류기업 진출 시 기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물량 확보가 어려우며 그에 따른 이윤 창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기업 입장으로서는 해당 국가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화주-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물류기업은 물량을 확보하고 화주기업은 안정적인 물류비와 운송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소개된 범한판토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화주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무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범한판토스는 극동러시아뿐만 아니라 케냐 몸바사항에 KOTRA와 함께 공동물류센터를 개설하여 동아프리카 지역의 국내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물류부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⁹⁷⁾, 한국무역협회와

97) 코리아쉬핑가제트(2012. 9. 13.)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협약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⁹⁸⁾ 또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식품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식물류업체로써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등, 물류업계의 동반성장 실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⁹⁹⁾ 이러한 화주·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은 국내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업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초기 리스크를 완화함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주-물류기업이 해외로 동반진출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해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대 제조기업이 동남아, 중국, 대만 등으로 진출할 때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들이 동반진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KWE는 일본의 전자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동반하여 진출함으로써 중국, 동남아 시장 등 현지의 물류거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Nippon Express 또한 이와 같은 동반진출 모델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화주-물류기업의 동반진출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등에 따른 연관산업의 동반진출도 우리 기업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98) 데일리로그(2013. 4. 19.)

99) 쉬핑뉴스넷(2013. 10. 22.)

〈그림 4-3〉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모델(안)



자료: 아주경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및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 논의”(2014. 4. 3.),
<https://www.ajunews.com/view/20140403093645327>(검색일: 2018. 10. 5.)

2. 한-러 합작(협력) 모델(Joint-Venture)

극동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러시아 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하는 모델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이 부족한 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한국 농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최근 러시아 북방지역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비닐하우스 모델과 스마트 팜을 소개하였고, 첨단 곡물가공 설비와 한국산 육용 종계 등을 소개하면서 러시아 기업들에게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3. M&A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 중심의 M&A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4년간 러시아는 서방 제재 등의 정치적인 여파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M&A와 같은 자본주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현재 러시아에서는 국내외 민간 기업들의 M&A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의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 유치 파트너십이 서구 중심에서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M&A를 통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더욱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6년 기준 러시아의 M&A 시장 규모는 758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수준이다.¹⁰⁰⁾ 또한 2016년 러시아의 M&A 외국인 투자 전체금액의 80%가 중동과 아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협력가능 사업 및 과제

앞서 제안된 성공가능 모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극동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러 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수산업, 물류 인프라, 지역개발 사업 등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화주-물류 기업 동반진출은 의료산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사료된다.(〈표 4-1〉참조).

100) KOTRA 해외시장뉴스, 「위기 속에서 기회 찾은 러시아 M&A, 실속 있는 시장으로 전환 중」
(검색일: 2018. 11. 4.)

〈표 4-1〉 사업모델 및 협력가능 사업(안)

사업모델	협력가능 사업		
동반진출	의료	• 병원 건설 •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유통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한국의료기관 진출	
한-러 협력	수산업		• 수산물 2~3차 가공식품 생산
	목재가공업		• 우드펠릿 생산 및 수출
	인프라	물류	• 도로 및 에너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
		곡물저장 및 운송시설	• 산지엘리베이터 건설(우수리스크, 미하일롭스키) • 수출엘리베이터 건설(블라디보스토크항, 자루비노항)
		기타	• 노후 병원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 (도시개발, 건설 등)		• 극동 러시아 도시 인프라 현대화 수요 • 글로벌 인프라펀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활용

1. 동반진출 모델

1) 의료 분야

극동 러시아 지역에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바로 의료산업이다. 지난 2013년 러시아는 자국의 공공의료서비스 품질을 2018년까지 개선하고자 개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에 있어 질적 및 양적 개선 효과를 동반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숙련된 의사 인력, 양질의 의료 장비 등의 문제가 산적함에 따라 러시아 국민들도 공공 의료서비스가 아닌 민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헌법은 자국민에 대한 보편적 무상의료를 보장하고 있어 러시아 국민 개개인은 거주지에 의거해 해당 국영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품만 자비 부담이다.¹⁰¹⁾ 하지만 러시아의 의료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부족한 예산 탓에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급여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부분 공립 병원들은 과거 구소련 시절 의료기기를 여전히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러시아 의료 시장은 글로벌 의료 강국들에게 있어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상진료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낙후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보다는 추가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민간 또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기관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해외 유출이나 보건의료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의료기관,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과 건설, IT등 연관 산업의 대 러시아 진출은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러시아 의료 서비스 시장은 2017년 기준 416억 달러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⁰²⁾

2) 전자상거래¹⁰³⁾

IT의 발전과 함께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해외상품 구매에 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서방세계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루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해외 온라인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는 2018년 19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2023년에는 534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는 전자상

101) 통일한국, “낙후된 의료 인프라... 한국식 ‘패키지 딜’ 시작해야” (<http://unikorea21.com/?p=13958>) (검색일: 2018. 11. 1.)

102) KOTRA 해외시장뉴스, 「불황 속 기회시장, 러시아 의료시장 진출 방안」(검색일: 2018. 11. 3.)

103)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동향」(검색일: 2018. 11. 10.)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1,000유로 및 31kg 미만의 상품에 한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러시아 소비자들의 대부분(90%)의 해외구매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현 시기가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할 적기라고 사료된다. 특히 한국 기업의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 및 러시아 온라인 플랫폼 통합업체와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인프라

앞서 언급된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영향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배송 관련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중심 국가로써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위치를 지니고 있어 물류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는 물류산업의 인프라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낙후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철도운송은 러시아의 주요 운송 수단으로써 자국 화물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해 남북중단 철도(TKR)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TKR이 실현될 경우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통해 물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향후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프라 개선에 대한 노력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해당 산업 분야가 진출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 등 양국이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 물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¹⁰⁴⁾

2. 한-러 협력 모델(Joint Venture)

1) 수산업 분야

수산업 분야는 앞서 제안된 한-러 협력모델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극동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한-러 수산업 분야 협력방안



주: google.com 그림 활용하여 KMI 작성

104)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 물류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 진출 동향」(검색일: 2018. 11. 4.)

일반적으로 극동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북 정책과 연계하거나 연해주라는 제한된 틀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북한에 접경해 있는 연해주 또는 블라디보스토크만을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킱크랩을 공급하는 캄차카 지역 등 극동 러시아의 각 지역별 특징이 있으며 극동 러시아 자체로도 우리나라의 미래 구상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북한과의 관련성만 중심으로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최근 수온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획득한 수산물이 약 16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연해주는 여전히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극동 러시아 지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력 및 자본이 부족한 반면, 기계와 기술, 자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 부문에서의 한·러 합작은 상호 호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자재, 자원 등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벗어나려는 러시아 관점에서 이러한 상호 협력은 최적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4-4〉 참조).

2) 목재가공업

목재펠릿은 친환경 바이오 연료 중 하나로 러시아의 임업자원을 활용한 목재펠릿 제조 공장 및 물류 연계와 활용은 양국 간 협력 유망사업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사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면서 목재펠릿 수요가 증가하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극동 러시아 지역에 목재펠릿 가공 공장을 설립할 시 다양한 이점이 있다. 우선 목재펠릿의 주원료인 목재 생산의 경우, 극동 러시아

지역은 프리모르스키주나 하바롭스크주를 중심으로 다량의 목재가 생산되고 있어 목재펠릿 가공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목재펠릿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목재펠릿 시설은 대부분 유럽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의 제조산업 유치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계속된 유가하락과 경제침체로 인해 루블화 가치가 하락해 직접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존재한다. 중국의 목재펠릿 시장은 자국 내 수요가 적으나, 향후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할 경우 중국 업체들의 시장진입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지투자 시 리스크로는 해외직접투자 인허가의 경험이 적은 극동 러시아 지방정부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리스크도 존재한다.

목재펠릿 협력 방안으로는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즉, 한국 기업은 목재펠릿 가공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현지 기업은 생산과 관련된 부지 제공 및 원료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극동 러시아 지역의 임업자원을 활용한 목재펠릿 가공 사업은 일반 제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위험 요소인 '원재료 수급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인프라

(1) 도로 및 에너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

극동 러시아 물류인프라 개선 사업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극동 러시아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동 러시아 지역의 기업투자를 제한하는 요인 중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인프라 분야의 취약성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많은 미하일롭스키 지역의 경우,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 소요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도로 및 에너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 인프라의 총투자 수요는 443만 루블에 달하며 특히 도로와 전력 등의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 확충계획인 투자액은 44.4억 루블에 불과해 필요로 하는 투자액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¹⁰⁵⁾ 이 지역은 연해주 4개 선도개발구역 중 한 곳으로 러시아 정부는 이 일대를 농축·식품산업에 특화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개발구역의 경우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러시아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표 4-2〉 참조).

〈표 4-2〉 미하일롭스키 지역의 인프라 현황

(단위: 1백만 루블)

인프라 유형	단위	최대용량	필요량	
			규모	투자액
도로	km	28	39	1.19
전력	mw	-	58	1.18
가스	m³/시간	-	15,445	0.70
상수도	m³/일일	-	6,368	0.29
하수도	m³/일일	-	6,226	1.07
합계				4.43

자료: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2018, p. 14

105)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p. 14.

(2) 곡물저장 및 운송시설

극동 러시아는 생산한 곡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사일로 등)이 크게 부족해서 이 지역에서 영농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은 바로 사일로, 산지 엘리베이터 및 수출 엘리베이터 등 곡물저장 및 운송시설 건설이다.

최근 한·중·일 3국의 곡물 수입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의 식량수요 및 축산 사료 수요의 증가, 한국과 일본의 유기농 식량에 대한 수요 증가는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의 농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요 요건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GMO 작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어 타 곡물수출국에 비해 Non-GMO 작물의 공급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체결로 점차적으로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농식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지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농장개발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우수리스크 혹은 미하일롭스키 등 지역에 사일로 건설과 산지 엘리베이터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거점 수출 항만에도 현재 갖춰져 있지 않은 수출형 엘리베이터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극동 러시아 거점항만 시설 확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출형 엘리베이터의 건설은 연해주 최대 항만인 블라디보스토크항과 현재 곡물터미널 사업이 추진 중인 자루비노항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례로 과거 일본기업들은 러시아 극동항에 석탄 반출 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해주 보스토치노항의 개발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향후 개발 및 활용성이 높은 자루비노항을 중심으로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건설권을 확보함으로써 거점 항만을 선점하고 우리나라 국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노후 병원 인프라 개선

러시아 의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병원들의 신규건물 건설, 재건축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초기 진출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러시아 병원의 대부분은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된 상황으로 현재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극동지역의 병원 재건축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러시아의 의료시설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향후 국내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는 좋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역개발

지역개발 업종 중 하나인 도시개발, 건설 및 건축 분야 기업의 진출은 향후 극동 러시아 주택 분야 건설 수요 증가에 따라 진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극동 러시아의 지역개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유입 추진이다. 인구유입에 따라 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최근 극동 러시아의 주택 건설 등 분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일본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도시 인프라의 현대화 사업을 제안한 바와 같이 극동 러시아 지역의 도시개발과 정주 여건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도시개발 경험과 산단 인근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업 등과 연계해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주택 분야의 지식공유사업(KSP)과 글로벌 인프라 펀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진출이 필요하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극동 러시아에 진출한 화주,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진출과정, 애로사항, 성공 및 실패요인 등을 통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도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여건

1) 한-러의 공통 관심사

제2장에서는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여건을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법 등에 대해 연구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신북

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통해 양국이 극동 러시아 진출 및 개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을 파악했으며, 양국의 각 정책이 극동 러시아 개발에 있어 어떤 공통적인 지향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 정책으로 아태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계획 업그레이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은 현재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외교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상된 정책으로써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환동해권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 혜택 강화

러시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 등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투자 제도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년을 기점으로 러시아 중앙정부는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제조업 및 첨단산업 부문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설정된 ‘선도개발구역법’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만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러시아는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지정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태지역 여타 경제특구와 비슷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경제 여건

러시아는 자원의존형 국가이면서 동시에 빈약한 제조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후 제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가 최근 경제개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극동 러시아 지역의 제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발전단계에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일부 특정 제조업 부문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농가공업, 수산가공업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처리 등 에너지 자원, 금속 및 광물, 목재 산업 등 자원산업 등을 극동 러시아 유망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극동 러시아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산가공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2. 국내외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1)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극동 러시아는 다른 러시아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곳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로 모스크바 등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극동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으로 운송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총 34개의 기업이 극동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진출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2) 국외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

국외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현황은 일본과 중국을 중점으로 살펴봐왔다. 일본의 경우 2005년 러시아 연방법 개정 이후 일본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역시 모스크바를 위주로 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극동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사할린과 연해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헤이룽장성은 중국과 러시아 협력에 있어 중요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러시아 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진출 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해외농업개발 분야로의 진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 분야의 진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 분야를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 및 북한의 비핵화 이행 등 여건이 개선되면 과거 논의되었던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관한 논의의 재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우리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사례분석

실질적으로 극동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화주, 물류, 지역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등 사례분석을 통해 극동 러시아 진출에 있어서 각 기업들의 진출 리스크, 주요 실패 및 성공요인을 도출했으며,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극동 러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 전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가 필요하며, 나아가 현지투자 등 관련 법제도와 언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러시아 현지 기업과의 M&A를 통한 진출은 각종 비용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빠른 사업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3. 국내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가능 분야 및 애로사항

1) 진출 가능 분야

러시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극동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극동 러시아 기업들의 대표 협력 사업으로 목재가공업, 조선업, 수산가공업, 양식업, 건설산업 등이 진출 가능한 분야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진출 애로사항

북방경제권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어 및 통관, 서방의 제재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한 투자리스크가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률과 행정제도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사용률이 낮아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않는 이상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 정책제언

1.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진출 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다양한 진출 리스크가 상존하는 극동 러시아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주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 인입 인프라 및 물류 인프라의 효율성, 진출 지역의 투자여건 등이 사전에 조사되어야 하며, 물류기업도 통관 절차 및 품목별 요구되는 인증서 종류 및 인증서 발급절차·소요기간, 물류창고 개발 시 인·허가 절차 및 부지 선정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개발 기업, 특히 영농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지임대, 생산물의 통관, 관세 등 제반 분야의 정보를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정보가 러시아어로 제공되어 언어장벽의 어려움을 겪거나, 공개되는 자료가 제한되어 수익성 확인 및 안전성을 검토하기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관련 법령의 잦은 변경과 관리기관 및 기업의 의사결정이 느려 시간과 비용의 소모도 크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제도, 시책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잦은 규정 변경에 따라 사업전략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뢰성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러시아 주정부 및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국내 기업 진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1) 정부 부처 간 협의체 및 산·학·연·정 협의체 구성

극동 러시아 진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기관, 대학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직접적인 수요자인 기업들의 의견수렴 및 진출 장벽의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물류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도 출된 어젠다를 바탕으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극동 러시아 지역의 진출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통관, 물류·인프라 확충 부문 등에서의 실효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 정부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현지 투자관련 법률서비스 및 진출 컨설팅서비스 지원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법률, 통관, 문화 등 러시아 투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러시아 투자와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러시아 법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러시아 진출에 있어서 법제도적 이해, 언어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극동 러시아에서는 법인 설립 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법률이 미치지 못하

는 부분이 많아 러시아 전문 법률법인 등 법률 파트너를 통해 정확한 정보 습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잡한 러시아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제도 컨설팅 서비스 지원 풀을 구성하여 러시아의 법규제 및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극동 러시아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건설기간보다 허가를 위한 기간이 더 소요되는 등, 현지 법률 및 규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 보호 아래 철저한 투자 및 진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극동 러시아 진출을 원하는 기업 또는 이미 진출한 기업 중 사업 확장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컨설팅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진출희망 지역, 진출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단기적인 컨설팅을 비롯하여 사업 구조, 수익성 분석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극동 러시아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개발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지 밀착형 기업진출 컨설팅은 한·러 공동연구센터(KMI-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등과 같은 조직 간 협력을 기반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현지 공동조사를 수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3) 현지 파트너 매칭 지원 및 현지기업 정보 공유

현대일렉트릭시스템은 현지 직접투자 및 단독출자로 극동 러시아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공장 준공 이후 현지기업의 장기계약 불이행

및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루블화 폭락 등으로 결국 극동 러시아에서 철수하였다. 반면, 현대농장의 경우, 초기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소요 및 인력의 현지적응의 어려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농장을 인수하여 진출하는 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때 과거 러시아 국영 농장 또는 집단농장의 틀을 이어온 기업보다 선진화된 영농사업을 추진한 외국기업이 운영하고 있던 농장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이와 같이 견실한 현지 기업의 인수는 현지 투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을 절감시키고 빠른 사업의 정상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극동 러시아 현지 기업들과의 합작으로 진출 시 신뢰 가능한 현지 파트너 기업의 매칭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부산항만공사의 나훗카항 투자 사례와 서울 중부시장 상인연합회의 하바롭스크 수산단지 합작건설 사례 등은 현지 파트너의 신용도에 대한 파악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현지 파트너 기업의 신뢰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물류기업, 화주기업의 기업 정보 및 신용도 등을 포함한 현지기업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정기적·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화물 하역, 운송 부문에서 사업자들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디렉토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극동 러시아의 사업여건, 진출 법제도 동향 및 극동 러시아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소개, 물류 분야 신규 비즈니스 모델 소개 등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극동 러시아의 물류시장 진출 전략 및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동시에 극동 러시아 진출 및 진출 예정 기업

의 애로사항과 해외진출지원제도의 한계점 등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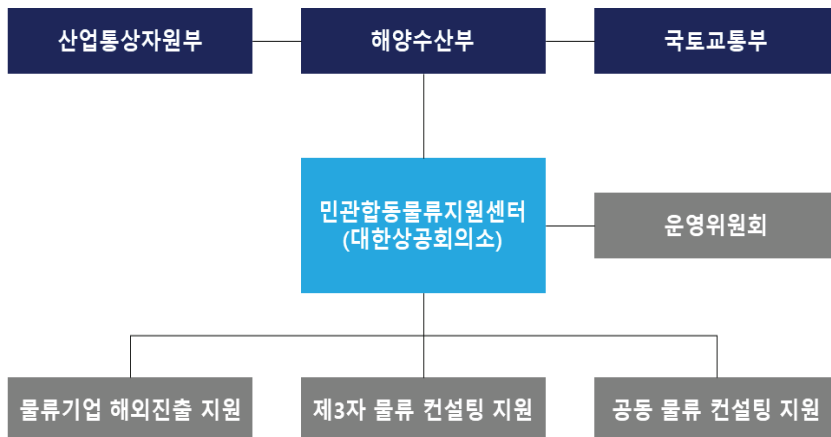
3.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플랫폼 구축

국내 화주기업들도 최근 극동 러시아 지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나 물류비용 지불 절차, 불투명한 통관 절차 등 국내와 상이한 러시아 물류시스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물류 파트너를 찾기도 쉽지 않다. 반면 물류기업의 경우 극동 러시아 진출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국내 화주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즉, 국내 물류기업이 극동 러시아 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 등 물류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출 초기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물동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진출 초기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현지에서 물류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류센터와 같은 물류인프라를 임대 사용할 경우에도 단기 계약이 어려워 일시적인 화물을 이용한 임대 운영은 사업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선 기존에 국내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파트너 업체와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내 산업(건설, 제조업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함께 진출할 경우, 해당 지역에 조기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더불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중장기 화물

계약을 통해 극동 러시아 진출 시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화주기업은 국내 수준의 물류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공장 및 물류 창고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지역개발 기업까지 패키지로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2016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조, 유통, 물류기업 등의 해외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 3가지 주요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¹⁰⁶⁾ 특히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사업의 목적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로 동반진출을 추진 시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림 5-1〉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추진 체계



자료: <http://www.worldlogis.net/main/main.do>(검색일: 2018. 11. 1.)

106) 해외물류시장 정보포털(검색일: 2018. 11. 1.)

〈표 5-1〉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구분	내용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화주와 물류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시 컨설팅 비용(50%) 지원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	자사 화물을 직접 운송하거나 물류 자회사를 이용하여 운송하던 화주가 물류기업에 물류를 위탁(제3자물류)하도록 컨설팅비(50%) 지원
공동물류 지원사업	물류 공동화를 확대하기 위한 컨설팅비(50%) 지원

자료: 해양수산부, “화주·물류기업 대상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설명회 개최”(2016. 4. 19.),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1935&searchSelect=title&boardKey=10&searchStartDate=2016-04-18&searchEndDate=2016-04-21&menuKey=376¤tPageNo=2>(검색일: 2018. 11. 1.)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광진기계와 유신정밀공업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콘테이너로 지스티스(주)와 컨소시엄을 구성, 폴란드(2014년, 광진기계-에어콘테이너)와 멕시코(2015년, 유신정밀공업-에어콘테이너) 진출했다. 염료·전자재료 제조 기업인 경인양행도 부족한 해외 물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CJ대한통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동반진출을 통해 관련사업 부문의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의 화주·물류기업이 동반진출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물류기업들이 우리나라와 극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간의 수출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주요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물류시장 정보포털에서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컨설팅 지

원뿐만 아니라 국가 혹은 권역으로 구분하여 물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화주기업-물류기업 간의 매칭 등으로 역할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4. 현지 물류전문가 양성 및 교환 프로그램 개설

1) 현지 물류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인력 부족 특히 전문인력 부족으로 겪는 애로사항이 상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운, 항만, 국제물류 부문의 전문지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 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인력양성 사업(국토교통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해양수산부) 등 정부 주도의 물류 전문가 육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물류전문가 양성 사업은 대부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구사하는 물류 전문가는 배출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의 교역량의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은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과의 교역 증대에 대비하여 러시아어가 가능한 물류전문 인력 양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러시아는 언어에 대한 제약, 법제도 및 통관 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칭) 한·러 물류 통관 아카데미 등을 설립하여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해외진출 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러시아 전문인력은 문화 및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통관 등에 수반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관세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 부문은 우리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모두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73%까지 확대되었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여전히 FTA를 수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5년 기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도 2009년 270건에서 2014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면 브라질과 남미 대륙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의 통관 업무를 지원할 관세관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판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 세관 직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지만 2015년 기준 단 3명의 관세관만 파견되어 있는 상태이다.¹⁰⁷⁾

러시아의 통관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지만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6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2일의 3배에 이른다.¹⁰⁸⁾ 러시아 세관과 러시아 진출 국내 기업 사이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러시아 현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세관은 없다. 우리나라의 수출 및 진출 주요 국가로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흥국가는 세관행정 등의 사업 여건이 낙후되어 해당 국

107)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활동이 활발한 미국, 일본, 중국(북경, 상해, 홍콩), 태국, 베트남, EU 등 6개국에 9명의 관세관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해외통관 민원상담, 해외통관정보의 수집·전파, 해외 관세 정책 동향 및 자료 수집, 불법·불공정 무역행위에 관한 해외조사 및 정보수집, 우리나라 통관제도에 관한 해외민원안내 및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검색일: 2018. 9. 2.) 참조

108) 조선비즈(2015. 2. 1.)

가의 주재 관세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 주재 관세관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며,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세관행정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국내의 외국어대학에 세관 행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 관세관 양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 관세청은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해 올 12월부터 EU 및 베트남에 관세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남북협력 관계 개선, 신북방정책 실현 등을 위해 이런 관세 전문가 파견 영역이 극동 러시아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5-2〉 러시아 전문인력 지원 방안

현지중심형 인력 양성	• 이론중심의 형식적인 교육 지양 • 해외전문가 초빙 등을 통한 현장중심형 워크숍 개최 • 해외파견 인력 양성
전문관세관 육성·파견	• 전문 관세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러시아어 가능 전문관세관 양성 • 극동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통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세관 파견

2) 현지 채용 물류전문가 체재비 지원

극동 러시아에서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은 원활한 의사소통 및 높은 업무이해도 등을 이유로 국내 물류인력의 현지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나, 현지 인력 대비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숙식 및 주거비 등 체재비용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메리트가 없어 현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물류인력은 많지 않다. 기업들의

경우에도 국내 물류인력들에게는 현지인들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체재비 지원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되어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에서 현지에서 물류 인력을 채용하여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써, 일정기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체재비 지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부는 물류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물류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추진

우리나라와 극동 러시아의 물류 환경 및 여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러 간 물류 전문가와 물류전문가 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환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물류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은 상대 국가의 물류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로의 확대도 가능하다. 즉, 이러한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물류 관련 업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세관 절차 및 요구서류 등 통관부문 지원

1) 세관 요구서류 지원

러시아의 통관절차는 타 국가 대비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며, 요구서류가 다양하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 등은 일정수준 이루

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세관 통과를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표 5-3〉 참조). 더욱이, 러시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에도 러시아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2004년 신(新) 관세법의 시행으로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는 간소화되었으나, 상품의 품질 인증 기준이 강화되어 요구되는 서류는 오히려 증가했다.

〈표 5-3〉 러시아 수입 통관 제출 서류

서류목록	담당자	서류	언어	구분	비고
1) CIPL(Invoice, Packing List)	수출자	사본	영문	필수	
2) 보험증서(Insurance Policy)	수출자	사본	영문		
3) 제품설명서	수출/입자	사본	영/노문		사전사료 포함
4) 매매 계약서	수출/입자	사본	영/노문		
5) 수입 신고서(GTD, Customs Declaration)	관세사	원본	노문		
6) DTS(Declaration of Customs Price)	관세사	원본	노문		
7) MBL or RWBL(Rail Waybill)	운송사	원본	영/노문		
8) 세금 송금증(Bank Slip)	수입자	원본	노문		
9) 외환거래 허가증(Passport of Deal)	수입자	사본	노문	선택	US\$ 20,000 이상
10) 통관 위임장	수입자	사본	노문		수입자-운송사
11) Price List	수출자	사본	영문		세관 요구시
12) 수출 신고필증	수출자	사본	영문		세관 요구시
13) 원산지 증명서	수출자	원본	영문		Lamp 등 특정 제품
14) 운송비용 내역표	운송사	사본	영문		FOB 화물
15) 인증서	수입자	공증 사본	노문		제품별 준비

주: 1) 보세통관 시 제출 서류: CIPL, 보세통관 신고서(VTT), Master BL, Rail Waybill

2) 러시아 통관은 한국이나 일본, EU 국가보다 많은 서류 제출이 필요

자료: KOTRA,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p. 394

특히 러시아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화물검사가 대부분 필요하여 검사 비용이 발생하고, 통관에 2일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즉,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화물검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간 소요에 대해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서류 작성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화물검사의 경우 Seal 손상, 제출서류와의 내용 상이성, 신고 내용 변경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며, Random 방식의 표본 추출 검사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화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품 파손 및 분실 우려도 있으며, 보관료 및 크레이 사용료 등의 높은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통관 절차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통관에 필요한 인증서 등 제출 서류 작성 지원이 필요하다.

2) 세관통계자료의 가시성 확보

극동 러시아 세관의 수출입관련 원자료는 외부에 개방되어 있지 않다. 지역 세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지역별, 시기별, 주요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으로 구분된 개별 파일은 제공되나, 매년 제공되는 양식 및 공개 범위가 상이하며 제공 시기도 다르다. 또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시기적으로 늦게 발표되는 등 현지 수출입 현황을 비롯하여 과거부터의 추세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역 세관별 상품 분류기준 자체가 다르게 제공되며, 물동량 단위 및 가격 단위가 지역 및 연도별로 상이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6. 산업 유형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1) 자원지향형 산업

현재 극동 러시아는 자원지향형 산업이 진출하기에 가장 적합하

다. 극동 러시아는 광활한 농지, 풍부한 지하자원 및 에너지 자원, 수산물, 목재 등 자원개발, 생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지향형 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시에도 언어장벽, 열악한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현지 파트너사의 신뢰도 등 기존의 극동 러시아 진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자원지향형 산업이 극동 러시아에 진출하기에는 가장 용이하나, 충분한 사전 조사 및 인프라 개발기업, 물류기업 등과의 동반진출 등 기존의 진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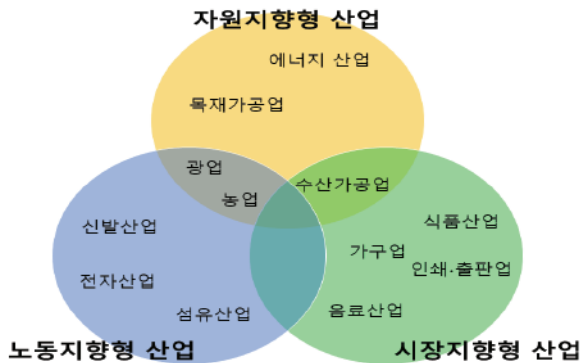
2) 시장지향형 산업

일반적으로 시장지향형 산업은 제조과정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거나, 제품이 쉽게 변질 혹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산업이 소비지 인근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구, 음료, 식료품 등이 대표적인 시장지향형 산업이다. 즉, 충분한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산업의 진출이 용이하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의 경우 인구가 약 620만 명 수준으로 면적 대비 소비시장이 협소하며, 연해주의 경우에도 면적(164,673km²)은 강원도(16,826km²)의 약 10배 수준이나 인구는 강원도와 비슷하다(2015년 기준 약 200만 명, 강원도 인구는 약 152만 명). 즉, 극동 러시아 지역을 소비시장으로 여겨서 시장지향형 산업이 진출하기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시장지향형 산업의 경우 인근의 중국 동북 3성을 대상 소비시장으로 인지하고, 동북 3성 소비자 특성 및 성향 등의 분석을 통한 사업아이템 및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러시아에서의 수출과 관련된 통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관련 전문가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노동지향형 산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동 러시아는 거주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지향형 산업이 진출하기 용이하지 않다. 물론 최근 루블화의 폭락으로 현재 극동 러시아 지역의 인건비는 중국보다 저렴하지만, 향후 루블화 상승 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¹⁰⁹⁾ 또한, 러시아의 근로 문화 및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중국, 동남아시아 등 대안과의 충분한 비교·검토 후 진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생산자동화가 가능한 산업의 경우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높은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같은 한·러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러의 공동이익을 실현을 위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노동 집약적 산업 또한 극동 러시아 지역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산업 유형별 분류 예시



자료: 저자 작성

109) 러시아 현지 진출 물류기업 인터뷰(2018.9.6.)

7. 자금조달 및 초기 운영 리스크 경감 방안 수립

기업진출에 있어서 대기업 외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농업개발기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극동 러시아 지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규모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2018년 6월 공식 출범한 우리 정부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IND는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PPP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그 출범 목적이다. 지원 분야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도시개발,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화공 및 산업 플랜트, 수자원, 환경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표 5-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

구분	내용
촉진자	• 신뢰성 있는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정보 제공 • 타당성 조사 지원 및 전문적인 사업검토 서비스 제공 • 해외사업 전문가 지원(Technical Assistance)
조정자	•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사업구조 구축 지원 • 투자자 - EPC - O&M - 금융기관 파트너십 구축 지원 • 발주처 - 대주단 등과의 사업협상 지원 및 갈등 해소
투자자	• 프로젝트 직접 투자 • Initial Due Diligence 및 투자 Risk 관리 지원 • 금융기관 추천

자료: <http://www.kindkorea.or.kr/?p=13>(검색일: 2018. 11. 1.)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의 경우, 막대한 인프라 건설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수출입은행, 다자간 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투자 등을 활용하여 개발기관의 불필요한 단편적인 협력사업 비용의 중복 소요를 줄여야 한다. 해외개발금융기관은 주요 펀딩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조언, 신흥국 공동투자 개발 시 리스크 해소방안 등이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극동러시아 진출 초기 언어장벽, 노무관리 등은 사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 및 검토가 가능한 부분으로 기업 내부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루블화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환율 리스크의 경우 초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리스크 헤지 방법으로는 ① 사전에 정한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외화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통화선도/통화선물), ② 외화를 사전에 정한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율(약정환율)로 매도·매수할 수 있는 권리 매매(통화옵션), ③ 거래 당사자 간 약정된 환율로 이중통화를 교환한 후 약정된 기일에 동화를 재교환하는 거래(통화스왑), ④ 향후 환율변동 손실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방법(환변동보험) 등이 있다.¹¹⁰⁾ 수출입기업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판매하는 환변동 보험 등을 통해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최근 루블화의 급격한 변동에도 극동러시아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진출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환변동보험과 같은 외부적인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11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검색일: 2018. 11. 1.)

〈표 5-5〉 환율 리스크 관리기법

구분	내부적 관리기법	외부적 관리기법
종류	•매칭 •리딩/래깅 •네팅 •가격정책 •자산부채 종합관리	•환변동보험 •선물환/통화선물 •스왑, 옵션 •팩토리, 할인
장점	•거리비용 절감	•유연성
단점	•선진시스템 필요 •제한된 보장범위	•거래수수료 •과도헤지(over-hedge) 우려

자료: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업인을 위한 환위험 관리 길라잡이』, 2009, p. 17

8. Exit 전략 마련

러시아가 선도개발지역, 자유항 등 신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의 극동 러시아 진출은 원활하지 않다. 이는 과거 부산항만 공사의 나훔카항 투자 실패, 서울 중부시장 상인연합회의 하바롭스크 수산단지 합작건설 사업 실패, 현대일렉트로시스템 철수 등의 기존 극동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철수한 사례로 인한 학습효과의 결과이다. 즉, 언어장벽, 열악한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등 극동 러시아 진출 리스크뿐만 아니라 러시아 현지 파트너의 신뢰성, 러시아 법·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내기업의 원활한 극동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실패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해 피투자국의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itical Risk)과 투자 상대방의 파산, 해당지원의 가격변동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¹¹¹⁾ 2015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이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가스회사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한 중소기업에 109억 원 규모의 공동 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건설, 엔지니어링 수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으로부터 해외공사를 수주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외공사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극동러시아 진출기업 보증보험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극동러시아 진출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진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역시 철저한 사전검토, 진출전략 수립, 사업 계획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관련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증보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1)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검색일: 2018. 11. 1.)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명구,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정책과 한-러 에너지 협력 방안」, 『산은조사월보』, 제743호,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7.
- 고재남, 「제4기 푸틴 정부의 국내외 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4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 권지형, KMI·KRIHS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2018. 8. 28.
- 김상훈,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과제」, 『KOSBI 중소기업포커스』, 제17-14호, 중소기업연구원, 2017.
- 김선철, 「한반도 연계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 지역 물류단지 입지 여건」, 『동북아북한교통물류웹진』, 13호, 한국교통연구원, 2016.
- 김용진, KMI·KRIHS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2018. 8. 28.
- 김은미,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제42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 김현일, 「북방경제협력 관련 주요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 『주간 KDB리포트』, 제742호, KDB산업은행, 201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한양대학교,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민지영·강부균·오명훈,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13-01(전략지역심층연구 13-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박지원, 국토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18.
- 변현섭,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 현황 및 대외협력 현황」, 중소기업연구원 통일/동북아 연구회 발표자료, 2017. 9. 8.
- 서종원·한은영, 「2018 러시아 교통인프라 개발동향과 한국과의 협력방향」, 『이슈페이퍼』, 제2018-03호, 한국교통연구원, 2018a.
- _____, 「프리모리예 국제운송회랑 개발 현황 및 협력 방향」, 『이슈페이퍼』, 제2018-04호, 한국교통연구원, 2018b.

- 이성규, 「러시아 전력시장 개혁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 이성우 외, 『극동 러시아 물류시장 진출방안 -기업 진출 사례 중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 이현주, 제8차 한-러 극동포럼 발표자료, 2018.
- 조영관, 『극동러시아 항만 물류 인프라 개발과 한국의 협력 방안』, 2016-지역이슈-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6.
- _____, 『한러 에너지 협력의 특징과 협력 제고 방안』, 2017-지역이슈-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a.
- _____, 『극동러시아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방안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b.
-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2018.
- 최영립, 「러시아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과 對아시아 LNG 수출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25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업인을 위한 환위험 관리 길라잡이』, 2009.
- 현대경제연구원,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VIP 리포트』, 통권 701호, 2017.
- 황윤희,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제9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 KOTRA,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7a.
- _____,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 2017b.
- _____, 『주요국 투자유치인센티브 제도 조사』, 2017c.
- _____, 『극동러시아 진출을 위한 현지주요네트워크』, 2018a.
- _____, 『극동러시아 투자사례집』, 2018b.
- _____,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8c.

〈국외 문헌〉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中国驻俄罗斯大使馆经济商务参赞处·商务部
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俄罗斯』, 2017.

帝国データバンク, “ロシア進出企業実態調査”, 2016. 12.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国对外投资合作发展报告』, 2017.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9.12.2014 N 473-ФЗ (ред. от 13.07.2015)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니제고로드주, 로스토프주, 레닌주, 마라주,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케메로보주, 스베르들롭스크주, 옴스크주, 야말로 네네츠크 자치주, 이르쿠츠크주, 첼랴빈스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타타르스탄 공화국, 튜멘주, 페름주, 한티만시스크 자치주 등이 포함됨(Динамика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региональные различия, Бюллетень о текущих тенденциях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июль 2017. p. 12.).

Ernest & Young, 『극동러시아 지역 외국인 투자 현황』, 2014.

〈인터넷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sessionId=h4FnbF0GFgQC2lX6SLJBhtcNrhy9K1bspvw4yg1pNSPnKNw8D1Tk!1697667026?deptJobId=DEPT_JOB_00000000021&layoutMenuNo=255(검색일: 2018. 9.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kr/info/company/04_02.html
(검색일: 2018. 11. 01)

노컷경제, “롯데, 블라디보스토크 호텔 농장인수… 러시아 극동지역 공략”(201

7. 12. 1.), <http://www.nocutnews.co.kr/news/4886024>(검색일: 2018. 8. 4.)
- 뉴시스, “푸틴, 세계5대 경제대국 약속했지만… 인력부족 등 난제 산적”(2018. 3. 19.), <https://www.msn.com/ko-kr/news/world/푸틴-세계-5대-경제대국-약속했지만-인력부족-등-난제-산적/ar-BBKpBut>(검색일: 2018. 11. 1.)
- 데일리로그, “범한판토스, 중소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2013. 4. 19.), <http://www.dailylo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8#09sf>(검색일: 2018. 11. 1.)
- 러시아 중앙은행, 2016년 12월 기준 전망치, <https://www.cbr.ru/eng/>(검색일: 2018. 6. 15.)
- 머니투데이, “현대重, 러시아 고압차단기 공장 '첫 삽'”(2011. 9. 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90909115380454>(검색일: 2018. 10. 16.)
- 블록체인AI뉴스, “현대중공업,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진출”(2011. 7. 23.), <http://blockchainai.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4&nMcate=M1001&nScate=11&nIdx=3678&cpage=31&nType=1>(검색일: 2018. 10. 16.)
- 박종호,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기업 진출전략과 과제”, 한리비즈니스협의회, 2015.9.22.(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2ahUKEwip-q_4977fAhVUIIgKHdgqCcgQFjAAegQIARAC&url=http%3A%2F%2Fwww.krbccouncil.org%2Fmodule%2Fboard%2Fdownload.php%3Fboardid%3Dboard14%26b_idx%3D55%26idx%3D593&usg=AOvVaw06qGVFg0kxOdpkc6Spn0ef, 검색일: 2018.9.2.)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전문가칼럼, https://www.bukbang.go.kr/bukbang/info_data/column/?jsessionid=7wSoupE+rW0Gi96YqqrN407w.nod-e20?boardId=bbs_000000000000012&mode=view&cntId=3&category=&pageIdx=2(검색일: 2018.06. 1.)
- 워킹뉴스넷, “범한판토스, 종합물류서비스로 수출중소기업 지원 앞장서”(2013. 10. 22.),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

o=1408(검색일: 2018. 11. 1.)

아주경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및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 논의”(2014. 4. 3.), <https://www.ajunews.com/view/20140403093645327>(검색일: 2018. 10. 5.)

에너지경제, “신북방정책 구체화 됐다…북방위·정부부처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 수립”(2018. 6. 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8633>(검색일: 2018.8.5.)

연합뉴스, “(그래픽)남북 추진 예정 철도 연결사업”(2018. 4. 29.), <http://m.yna.co.kr/kr/contents/?cid=GYH20180429000100044>(검색일: 2018. 5. 11.)

울산제일일보, “현대重, 러시아 고압차단기 공장 매각”(2017. 11. 23.),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24>(검색일: 2018. 10. 16.)

조선비즈, “높아지는 통관장벽…기업은 힘들다”(2015. 2.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1/2015020101947.html(검색일: 2018. 11. 1.)

_____, “지역별 전략으로 연 매출 2000억 원…시베리아 녹인 한국 상품들”(2016. 11. 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8/2016110800845.html(검색일: 2018. 10. 16.)

_____, “롯데, 러시아 현대호텔·농장 865억 원에 인수…극동지역 사업 강화”(2017. 12.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1355.html(검색일: 2018. 9. 4.)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러시아 기능인력 부족문제」,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41/view.do?seq=55646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69(검색일: 2018. 10. 4.)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1.25 현대중공업 연해주 고압차단기 공장 준공식 개최」,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4/view.do?seq=9722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2(검색일: 2018. 10. 16.)

- 중앙일보, “현대重이 연해주로 간 까닭은?”(2011. 7. 18.), <https://news.joins.com/article/5808694>(검색일: 2018. 10. 16.)
- 조선비즈, “높아지는 통관장벽…기업은 힘들다”(2015. 2.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1/2015020101947.html(검색일: 2018. 11. 1.)
- 철강금속신문, “현대종합금속, 극동 러시아 생산거점 구축 추진”(2018. 3. 13.),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441>(검색일: 2018. 8. 1.)
- 코리아슈핑가제트, “코트라-범한판토스 케냐에 공동물류센터 개장”(2012. 9. 13.),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age=45&bbsID=news&schVal=%EB%B2%94%ED%95%9C&categoryCode=search&bbsCategory=KSG&pNum=84744&backUrl=news_search(검색일: 2018. 11. 1.)
- 통일한국, “낙후된 의표 인프라... 한국식 ‘패키지 딜’ 시작해야”, <http://unikorea21.com/?p=13958>(검색일: 2018. 11. 1.)
- 판토스 홈페이지, 「범한판토스, 러시아 극동 물류센터 본격 운영!」, <http://www.pantos.com/kr/prcenter/newsDet.do?bdSn=143&rowLimit=10&page=7&rowNum=65>(검색일: 2018. 8. 10.)
- 한겨레, “남·북·러 가스관 연결 ‘3각 협력’ 수면 위로”(2018. 5. 2.),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42914.html>(검색일: 2018. 5. 27.)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insur/over_devfund01.do(검색일: 2018. 11. 1.)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indkorea.or.kr/?p=13>(검색일: 2018. 11. 1.)
- 해양수산부, “화주·물류기업 대상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설명회 개최”(2016. 4. 19.),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1935&searchSelect=title&boardKey=10&searchStartDate=2016-04-18&searchEndDate=2016-04-21&menuKey=376¤tPageNo=2>(검색일: 2018. 11. 1.)
- 해외물류시장 정보포털, <http://www.worldlogis.net/main/main.do>(검색일: 2018. 11. 1.)

一带一路战略平台, <http://www.drcnet.com.cn/www/ydyl/channel3.aspx?uid=8012#zhidao>(검색일: 2018. 6. 15.)

俄罗斯卫星通讯社, “中国纸业计划在哈巴罗夫斯克边疆区修建纸浆厂”(2017. 3. 13.), <http://sputniknews.cn/economics/201703131022078712/>(검색일: 2018. 8. 3.)

俄罗斯卫星通讯社, “远东自由港投资者开始在滨海边疆区落实俄中农工产业集群项目”(2017. 8. 10), <http://sputniknews.cn/economics/201708101023328484/>(검색일: 2018. 5. 27.)

海外网, “黑龙江省企业在俄建设经贸合作区18个”(2018. 2. 8.), <http://mini.eastday.com/mobile/180208133557846.html>(검색일: 2018. 5. 27.)

黑龙江日报, “乌苏里斯克经贸合作区绽放在俄罗斯的‘龙江之花’”(2016. 12. 6.), <http://hlj.hljnews.cn/system/2016/12/06/010375272.shtml>(검색일: 2018. 5. 7.)

黑龙江省商务厅, “东宁境外园区加快转型发展构建更高水平对俄合作平台”(2017. 5. 26.), <http://www.mofcom.gov.cn/article/difang/201705/20170502576655.shtml>(검색일: 2018. 5. 27.)

环球网, “俄罗斯乌苏里斯克经贸合作区”(2016. 4. 9.), <http://finance.huanqiu.com/br/focus/2016-04/8815132.html>(검색일: 2018. 5. 7.)

吉林市商务局, “吉林市多项商务工作被省厅通报表扬 市商务局在全省商务会上作经验交流”(2018. 2. 7.), http://sw.jlcity.gov.cn/swdt/201802/t20180207_398485.html(검색일: 2018. 5. 27.)

人民网, “吉林省推进建设12个境外经贸合作园区”(2017. 2. 20.), http://www.sohu.com/a/126726350_114731(검색일: 2018. 5. 7.)

商务部, “俄罗斯乌苏里斯克经贸合作区入区企业名单”(2014. 1. 2.), http://www.mofcom.gov.cn/article/zt_jwjmyhzq/subjects/201401/20140100449326.shtml(검색일: 2018. 5. 27.)

外交部, “外交部:中国已在沿线国家建设了75个境外经贸合作区”(2018. 5. 3.),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556448.shtml(검색일: 2018. 5. 27.)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推进境外经贸合作区建设 实现互利共赢”(2017. 2. 4.),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702/20170202509650.shtml>(검색일: 2018. 5. 27.)

中国境外经贸合作区, “俄罗斯龙跃林业经贸合作区”(2015. 7. 29.), <http://www.ocz.org/news/content-253954.aspx>(검색일: 2018. 5. 24.)

中俄资讯网, “黑龙江省对俄贸易进出口、投资合作、经贸企业、境外园区等综合概况”(2015. 7. 13.), <http://www.chinaru.info/zhongejmyw/zhongemaoyi/35315.shtml>(검색일: 2017. 5. 27.)

中俄资讯网, “中国‘境外产业园’在俄罗斯远东落地生根”(2017. 10. 25.), <http://h.hljagri.gov.cn/detail/9074.html>(검색일: 2018. 5. 27.)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驻俄罗斯代表处, “中国在符拉迪沃斯托克自由港入驻企业数量以及投资总额排名第一”(2017. 10. 3.), http://www.ccpit.org/Contents/Channel_3974/2017/1013/894186/content_894186.htm(검색일: 2018. 5. 24.)

中国中小企业黑龙江网 齐齐哈尔分网, “绥芬河市关注境外园区建设 坦然应对政策调整”(2007. 9. 17.), <http://www.qqhe.smehlj.gov.cn/web/assembly/action/browsePage.do?channelID=1134450276920&contentID=1189385574247>(검색일: 2018. 5. 28.)

IMF, <https://www.imf.org/external/index.htm>(검색일: 2018. 6. 15.)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 IT 시장 성장 가속화」(2013. 4. 17.),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20508>(검색일: 2018. 11. 1.)

KOTRA 해외시장뉴스, 「불황 속 기회시장, 러시아 의료시장 진출 방안」(2016. 2. 3.),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8400>(검색일: 2018. 11. 3.)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협력 현황」(2017. 10. 27),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1585>(검색일: 2018. 6. 14.)

KOTRA 해외시장뉴스, 「극동러시아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상황은」(2017. 11.

13.),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2199>(검색일: 2018. 5. 11.)

KOTRA 해외시장뉴스, 「위기 속에서 기회 찾은 러시아 M&A, 실속 있는 시장으로 전환 중」(2017. 8. 25.),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0457&searchNationCd=101093>(검색일: 2018. 11. 4.)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동향」(2018. 11. 5.),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0779&searchNationCd=101093>(검색일: 2018. 11. 10.)

KOTRA 해외시장뉴스,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공사 어떻게 되고 있나」(2018. 3. 28.),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5212>(검색일: 2018. 6. 1.)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 물류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 진출 동향」(2018. 8. 23.),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9069&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row=10>(검색일: 2018. 11. 4.)

KOTRA 해외시장뉴스, 「극동 러시아 진출 유망산업 중심 이동」(2018. 9. 3.),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9308&searchNationCd=101093>(검색일: 2018. 10. 1.)

KOTRA 해외시장뉴스, 「러시아 콜드체인(Cold Chain) 시장동향」(2017. 11. 1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2329>(검색일: 2018. 11. 1.)

티스토리 블로그, 「러시아 극동지역, 극동지구, 일반현황」, <http://politicstory.tistory.com/808>(검색일: 2018. 8. 4.)

극동개발공사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erdc.ru/>(검색일: 2018. 6. 7.)

러시아 통계청, <http://www.gks.ru/>(검색일: 2018. 5. 1.)

- Magic Quadrant Report, <https://www.gartner.com/en/research/methodologies/magic-quadrants-research>(검색일: 2018. 8. 1.)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ww.ved.gov.ru/eng/investing/sez(검색일: 2018. 5. 1.)
- QIWI Wallet, <https://corp.qiwi.com/en/company/wallet.action>(검색일: 2018. 6. 15.)
- Russia Briefing,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china-agree-pri-morye-1-corridor-opens-heilongjiang-asia-pacific-markets.html/>(검색일: 2018. 6. 13.)

〈인터뷰 자료〉

러시아 현지 진출 물류기업 인터뷰(2018.9.6./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업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 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언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더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희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연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

인 쇄 | 2018년 12월 29일 인쇄

발 행 | 2018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주)디자인월드 051-916-1533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15,000원